

##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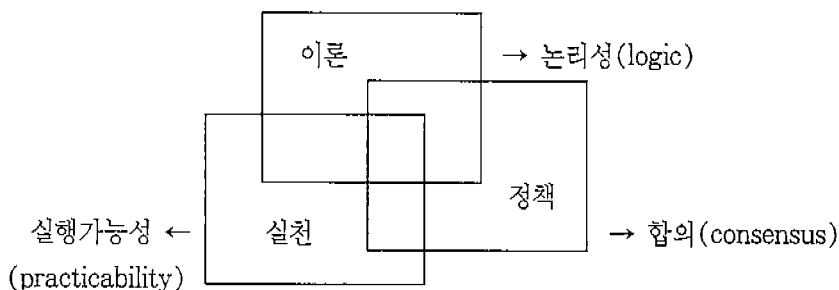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전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 → 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전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전이기에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 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형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한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격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추지 않은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사용은 한가지 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상황에 적합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 추상적 (지적) ←————→ 구체적 (정의적)                                                                              |                                                                                                                                                               |                                                                                                                                         |
|--------------------------------------------------------------------------------------------------------|---------------------------------------------------------------------------------------------------------------------------------------------------------------|-----------------------------------------------------------------------------------------------------------------------------------------|
| 전달 - 수용적                                                                                               | 참여 - 탐구적                                                                                                                                                      | 수련 - 체득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li> <li>• 강연</li> <li>• 강의</li> <li>• 시청각매체 이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대화</li> <li>• 토론·세미나</li> <li>• 회의</li> <li>• 버즈분단세미나</li> <li>• 역할연기</li> <li>• 실험·조사</li> <li>• 표현활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li> <li>• 답사·견학</li> <li>• 야영수련회</li> <li>• 봉사활동</li> <li>• 행군·행진</li> <li>• 훈련</li> </ul> |

[그림 2]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상호작용의 인식론과 방법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일반적인 지도기법으로 다음의 10개의 형태를 제시한다.

- 강의
- 강연식 공개토론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워크숍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 ○ 강의(Lecture)

###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 ○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차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하게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편편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차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 토론(Debate)

###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외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 역할연기(Role Play)

###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짠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 관찰·현지답사(Field Trip)

###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 워크샵(Workshop)

○ 특징 :

워크샵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샵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샵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샵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샷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샷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 구안법(Project Method)

###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가지 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 우리악기 익히기활동의 구성

우리악기 익히기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악기를 바로 알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악기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악기를 익히고, 스스로 우리악기가 지닌 자량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악기가 지닌 의미와 악기의 전통을 알고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식과정(우리악기 알기)
2. 이해과정(우리악기 이해하기)
3. 탐색과정(우리악기 의미찾기)
4. 실행과정(우리악기 연주하기)
5. 평가과정(우리악기 새모습찾기)

위에서 열거한 과정으로 구성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 과정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순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해도 우리악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5개의 과정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① 활동과정 ② 활동내용 ③ 유의사항 ④ 참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활동과정은 각 과정의 개관과 주요활동을 요약한 내용이다.
- ▷ 활동내용은 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활동들로서, 일반적으로 각 과정은 4~5개의 단위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위활동들은 각 활동의 과정과 지도요령, 활동방법, 도움활동, 도움자료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 ▷ 활동방법은 각 단위활동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강의, 공개토론, 시청각, 게시 및 전시, 토론, 분임토의, 역할연기, 현지답사, 워크샷, 구안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이 제시된다.
- ▷ 도움활동은 ‘악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전개되는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활동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내용이다.
- ▷ 도움자료는 각 단위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유의사항에는 각 과정의 진행 목적과 내용, 주의사항 등이 진술되어 있다.
- ▷ 참고에는 각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상과 주변의 많은 자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음껏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이다. 현장에서 충분히 응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악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악기 익히기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 과 정                     | 단 위 활 동                                                                                                                              | 활 동 내 용                                                            |
|-------------------------|--------------------------------------------------------------------------------------------------------------------------------------|--------------------------------------------------------------------|
| 인식과정 :<br>우리악기<br>알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노래는 우리악기로</li> <li>- 나와 궁합이 맞는 악기는?</li> <li>- 악기이름 맞추기</li> <li>- 악기의 갈래를 따라</li> </ul>  |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악기의 종류와 모양, 분류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악기에 친숙해진다.             |
| 이해과정 :<br>우리악기<br>이해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따라 몸도따라</li> <li>- 소리쫓아 정상까지</li> <li>- 악기소리 구별하기</li> <li>- 악기들이 모여 내는 소리</li> </ul>     |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소리의 특성과 음색을 이해하며 합주곡의 감상을 통해 우리악기의 분위기를 이해한다.    |
| 탐색과정 :<br>우리악기<br>의미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의악기 만들기</li> <li>- 기악곡의 백미, 산조</li> <li>-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비교</li> <li>- 악기전시장을 찾아</li> </ul>    | 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악기의 소중함을 알고, 연주곡의 감상을 통해 우리악기의 미적 요소를 발견한다. |
| 실행과정 :<br>우리악기<br>연주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드리는 악기의 세계로</li> <li>- 네개가 모여 사물</li> <li>- 부는 악기의 세계로</li> <li>- 함께 벌이는 악기관</li> </ul>    | 직접 장단을 쳐보고, 사물놀이와 악기관을 만들어 봄으로써 악기연주의 즐거움과 그 속에 담긴 민족정서를 체험한다.     |
| 평가과정 :<br>우리악기<br>새모습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뜩이는 영감으로</li> <li>- 모의국악기 연주경연대회</li> <li>-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li> <li>- 창작국악곡의 세계로</li> </ul> | 우리악기 소리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국악 창작의 세계를 이해한다.          |

## □ 악통이의 우리악기 익히기

### 1. 우리악기 알기

악통이는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시내에서 국악기상점을 지납니다. “와! 장구가 저렇게 많은 데도 있구나. 그런데 저건 뭐지?” 악통이는 가야금, 거문고 그리고 피리 등 하나 하나 이름을 생각하다가 한 악기 앞에서 그만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악기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 국악기 종류도 적지 않구나.” 그렇게 무심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되돌아 옵니다. 공부방에 앉은 악통이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기타를 듭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본 이상한 우리 악기가 떠올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음악관련 서적을 찾아봅니다. 아! 해금, 그 악기는 바로 해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악기는 대금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실물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기타는 물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물며 수자폰까지 서양악기라면 거의 다 아는 악통이는 스스로 민망함에 빠집니다.

### 2. 우리악기 이해하기

악통이는 어느 TV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나온 대금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히 대금소리가 분명해! 바다가 보이는 산허리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산사(山寺)에서 흘러나오는 청아하면서도 중후한 소리, 가슴을 울리며 하늘로 땅으로 은은히 퍼지는 소리가 바로 악통이가 들은 대금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니.... 혼자 혀를 차며 악통이는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 대금산조가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좀 더 확실히 듣고, 악기의 구조도 알아보기로 합니다.

### 3. 우리악기 의미찾기

음반가게를 두리번 거리며 악통이는 눈치만 힐끔 힐끔 봅니다. 같은 또래의 많은 청소년들이 팝송과 최신유행가요 녹음테이프 진열대 앞에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악통이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국악관련 진열대를 찾아봅니다. 한참만에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섞여있는 매우 대중적인 메들리 곡사이에 국악테이프가 빼꼼히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웬지 창피합니다. 자꾸 주위의 청소년들이 쳐다 보는 것만 같아 자신있게 대금산조를 고르지 못하고, 악통이는 종업원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 혹시 대금산조테이프 있습니까? 누가 부탁하던데...”라며 종업원이 골라준 테이프를 재빠르게 가방에 넣고 총총히 돌아옵니다.

### 4. 우리악기 연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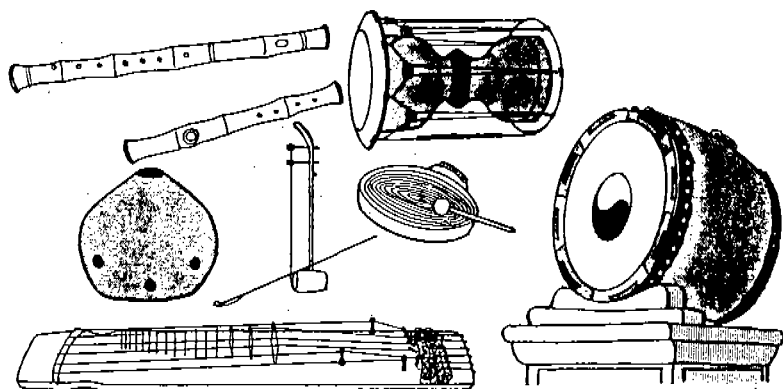
집에 돌아온 악통이는 대금산조를 돌으려고 휴대용 카세트에 녹음테이프를 넣다가 인상을 지으며 자신을 탓합니다. “왜 그런 변명을 했을까? 왜 당당하게 국악테이프를 사지 못했을까? 왜 눈치만 보다가...” 악통이는 못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점점 화가 납니다. “죄를 짓는 일도 아닌데...” 자책을 하던 악통이는 다시 옷을 입고 아까 본 악기점으로 갑니다. 용돈을 털어 대금대신에 단소를 삽니다. 그리고는 포장도 안한 채 변화한 거리를 뚝뚝하게 걸어갑니다.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욱 멋있게 보일 수도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악통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소를 붙어봅니다. 모양도 작아 매우 배우기 쉬운 악기로 생각한 악통이는 몇 번 헛바람만 불어 넣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뒤집니다. 단소를 배우자. 어디서 분명히 가르칠 것이라 생각한 악통이는 단소를 깨끗이 손으로 닦아내며 창박을 내다 봅니다. 새로운 기분과 감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이 마음 가득히 차오릅니다.

## 5. 우리악기 새모습찾기

사실 악통이는 한 번도 우리 국악기 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뒤적이던 악통이는 국악기 강습안내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우리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소식을 봅니다. 사물놀이 그리고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거문고산조 등 다양한 연주가 준비되어 있는 공연입니다. 악통이는 무릎을 칩니다. “그래, 생생한 우리악기의 소리와 음색을 들어보자. 듣고 난 후 판단하자. 과연 우리악기의 특색은 무엇인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모든 의문을 우리악기 연주를 직접 들은 후, 알아보기로 하자.” 악통이는 다시 한번 외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참 마음도 몸도 바뀐 하루입니다. 한구석에 있는 기타를 보며 씩— 하고 한번 웃는 악통이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표정이 가득합니다.



# 우리악기 알기



우리노래는 우리악기로  
나와 궁합이 맞는 악기는?  
악기이름 맞추기  
악기의 갈래를 따라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우리악기의 종류와 모양, 분류법 등을 알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악기에 친숙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우리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몸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노래의 반주를 한다.                       | 우리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자신과 어울리는 악기를 연관지어 국악기의 특성을 파악한다. |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악기의 특성을 안다. | 자신이 아는 악기를 게임의 형식을 통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한다. |

## 2. 활동내용

### 활 동 1 우리노래는 우리악기로

#### 활동내용

- ▷ 마음속에 우리노래를 떠올린 다음, 조용히 그 노래의 기본가락을 읊조린다.
- ▷ 그 노래를 보다 흥겹게 부르기 위해 어떤 악기를 사용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한다.
- ▷ 자신의 몸이나 주위에 있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악기의 느낌을 표현한다.
- ▷ 악기 표현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준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워크샷    ☒ 역할연기



## 도움자료

### □ 국악기의 종류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문화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한 악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고유한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의 악기는 자그마치 60여종이 되는데 이중에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악기도 있고 서역 지방이나 중국 등지에서 들어와 우리 음악에 맞게 개량된 악기도 있다. 물론 그 악기들이 지금도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악기에 따라서는 연주법을 아예 잃어버린 것도 있고 형태는 전해지고 있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는 악기도 있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국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양금, 피리, 대금, 소금, 단소, 통소, 새납, 편경, 편종, 쟁파리, 장구, 북, 징, 소고, 바라, 박 등 20여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이성재, 1994.

## 활 동 2    나와 궁합이 맞는 악기는?

### 활동내용

- ▷ 국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 ▷ 돌아가면서 하나씩 자기가 알고 있는 국악기의 이름과 그 소리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 ▷ 발표된 모든 악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 ▷ 같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둠을 만들어 모둠별로 악기가 지닌 특성과 구성원들의 특징의 공통점을 찾는다.

### 활동방법

\_\_\_\_\_ 시청각    ☒ 토론    \_\_\_\_\_ 역할연기    ☒ 게시 및 전시

### 악통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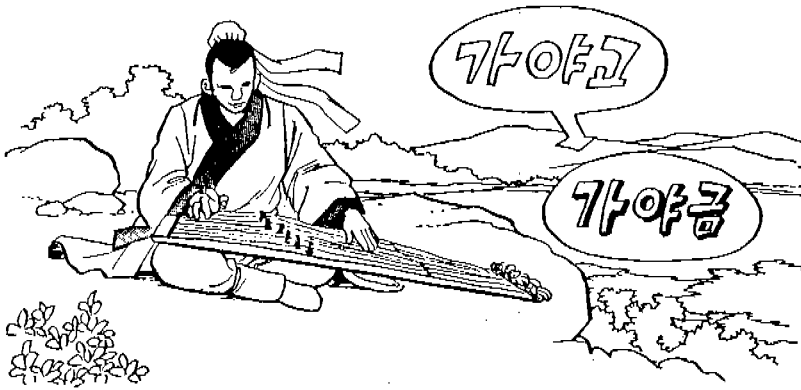
### 도움활동

- ① 거문고 ② 가야금 ③ 아쟁 ④ 피리 ⑤ 대금 ⑥ 장구 ⑦ 징 ⑧ 쟁파리 ⑨ 단소 ⑩ 북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악통이가 아는 우리

악기도 제법됩니다. 악통이는 한숨을 길게 쉬며 10개를 적었다는데 만족합니다. 옆을 보니 종승이는 악통이보다 세 개나 많은 13개의 악기이름을 적은 것이 보입니다. 다른 악기는 악통이와 같은데 종승이가 적어 놓은 것에는 북이 빠져있고 대신에 박, 해금, 통소, 그리고 편종이 들어있습니다. 다들 적은 다음,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는 악기의 특징을 말합니다.

종승이는 거문고의 특징을 남성적이고 웅장하다고 말하고, 악통이는 가야금의 특징을 여성적이고 섬세하다고 발표합니다. 다숨이는 대금의 특징을 신비롭고 우아하다고 말하고, 민철이는 피리가 전원적인 느낌을 준다고 발표합니다.

저는 우리악기 중 가야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확한 곡명은 기억 나지 않지만 언젠가 가야금 산조를 들은 이래로 가야금 소리에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보니 악통이만큼 가야금을 좋아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여서 가야금에 관해 서로 아는 지식을 나눕니다. “가야금은 원래 이름대로 하자면 가야고가 옳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야금을 처음 만든 사람이 우륵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야국의 가실왕이었다고 합니다. 가야금은 처음에는 가야국의 ‘가야’와 현악기의 순 우리말 고어인 ‘고’가 합쳐져 ‘가야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어인 ‘금(琴)’자가 고자를 대신해 가야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무르익어 우륵이 그의 말년에 가야금을 연주하고 곡을 만든 탄금대(충북 신단양근처 남한강)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까지 논의합니다. 그러다가 명식이란 친구가 갑자기 무엇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혜숙이가 자기 같은 미인하고 비슷하다는 말 자체가 영광일거라고 해서 한바탕 웃습니다. 뭔지 모르게 명식이 말을 듣고 보니 가야금을 좋아하는 것 말고 모인 사람들의 유사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 때 명식이가 무릎을 치며 아까 가야금의 특징을 이야기 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친구들은 섬세하고 화려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합니다. 모두 명식이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하다가 끄떡



입니다. 우리는 가야금과 각자의 성격을 주제로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합니다.

#### 도움자료

#### ☐ 주로 쓰이는 국악기

##### ○ 가야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기로 위는 오동나무, 밑은 단단한 밤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12개의 줄이 안쪽으로 받쳐져 있다. 왼손으로는 줄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는 뜯거나 튕겨 소리를 낸다. 정악에 쓰이는 가야금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넓으나 산조가야금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빠른 곡을 연주하기에 적당하다.

##### ○ 거문고

울림통 위에 6줄이 얹혀져 있으며 제2, 3, 4현은 16개의 꺾에 걸쳐져 있고 5, 6현은 안쪽으로 받쳐져 있다. 해죽으로 만든 술대로 치거나 뜯어서 소리를 낸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 대금

대금은 중금, 소금과 함께 '신라 삼죽'의 하나다. 대금을 젓대라고도 부르며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 있다. 취공 1개, 청공 1개, 지공

이 6개 있으며 칠성공은 하나 또는 두개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해 왔으며 영산회상, 여민락 등 정악에 사용되고 시나위, 산조 등의 민속악에도 쓰인다.

#### ○ 피리

피리에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8개의 지공을 가진 죽관에 대를 깎아서 만든 겹으로 된 서를 꽂아 분다. 세피리는 향피리나 당피리보다 죽관이 가늘어서 입김이 통하는 내경(內徑)이 좁고 서가 작기 때문에 불기가 힘들고 실내악 규모의 연주에 쓰인다. 향피리는 향악을 연주할 때, 당피리는 당악을 연주할 때 쓰인다.

#### ○ 해금

울림통 위에 연결된 2줄사위에 말총을 끼워 문질러 소리를 내며 울림통은 대, 줄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고려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악과 민속악에 두루 쓰이는 악기이다.

#### ○ 아쟁

아쟁은 울림통 위에 7줄이 안쪽으로 받쳐져 있으며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낸다. 음색은 거칠지만 웅장하다.

#### ○ 생황

생황은 박통의 아래쪽에 죽관(竹管)을 나란히 꽂는 것으로 죽관의 아래쪽 밖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나고 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죽관 하단에 금속청이 달려 있어서 하모니카와 같은 원리로 숨을 내쉬고 들며마실 때 소리가 난다. 여러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악기 중 유일한 화음악기라고 말하며 단소와 양금과 잘 어울려 연주되는 병주나 세악합주 등에 쓰인다.

#### ○ 양금

재래의 금 종류가 모두 명주실인데 반하여 양금은 줄이 철사로 되어 있다. 음 높이가 같은 네가닥짜리 구리철사 14벌이 2패에 의해서 울림통 위에 좌, 우, 중앙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를 깎아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영산회상이나 가곡의 반주에 많이 쓰이는 악기이다.

자료 : 이성재, 1994.

### 활동 3 악기이름 맞추기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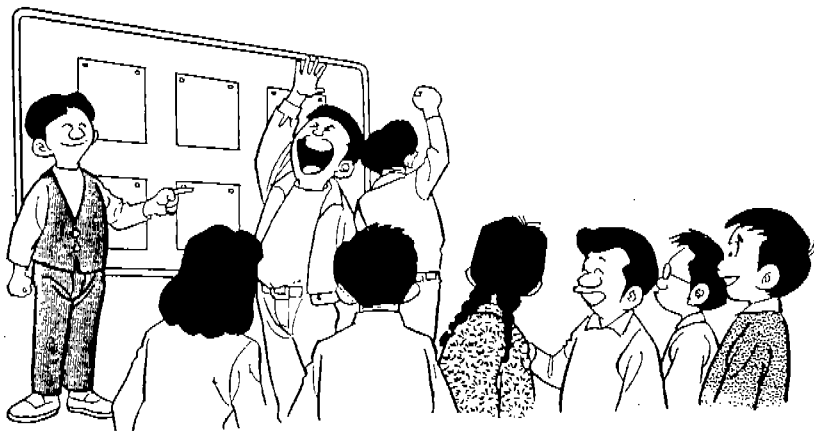
- ▷ 큰 종이에 악기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림 위에는 비치지 않는 두꺼운 종이를 덮어 적당한 크기로 퍼즐처럼 잘라서 번호를 매긴다.
- ▷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듬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나와 다른 모듬의 대표와 가위바위보를 한다.
- ▷ 이긴 사람이 두꺼운 종이를 한 조각 떼어낸 후 보인 그림을 보고 악기의 이름을 말한다.
- ▷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 ▷ 먼저 악기 이름을 맞추는 모듬에게 상을 준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공개토론

#### 악통이의 도움활동

이번 시간은 악기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종승이는 저보다 우리악기 이름을 많이 안다며 자기가 모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통이와 나머지 친구들은 적극 찬성하지만 다숨이는 종승이의 가위바위보 솜씨에 의문을 품습니다. 평소의 재빠르지 않은 행동을 보아서는 백전백패(百戰百敗)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려운 악기는 출제되지 않을 테니 가위바위보에 강한 친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종승이가 너무 완강하게 대표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고 내보내기로 합니다. 드디어 명식이와 겨루는 시간입니다. 힘찬 응원외 구호와 함께 손이 하늘로 번쩍 올라갔다가 “보”하는 순간 주먹과 보자기가 서로의 눈빛을 가립니다. 명식이가 보자기를 낸 것입니다. 외기 양양하게 6개로 나누어진 조각 중 여섯번째를 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의 다리같은 것이 나옵니다. 모른다고 고개를 재빨리 흔드는 명식이는 다시 종승이와 ‘가위·바위·보’를 시작합니다. 또 명식이가 이깁니다. 이번에는 세번째를 펼치자, 동물의 꼬리가 나옵니다. 다시 고개를 흔들며 손을 올리는데 종승이가 “어! 많이 본 동물인데...” 그 순간 악통이 머



리를 스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일이 있는 ‘어’라는 악기입니다. 아마 다른 친구도 종묘제례악의 모습에서 보았을 겁니다. 결국 세번째도 명식이가 이겨 모듬의 대표답게 한참 생각하다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어’라는 악기를 설명하고 이어서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의 그림을 놓고 겨룹니다. 악동이 모듬은 열번의 게임 중에 단 두번만 승리하여 연필을 하나씩 받습니다.

#### 활 동 4 악기의 갈래를 따라

##### 활동내용

- ▷ 국악기를 재료나 연주법에 의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다.
- ▷ 악기의 이름을 하나씩 카드에 적고 두개의 모듬으로 나누어 각각 악기카드 한장씩을 숨긴다.
- ▷ 상대방 모듬에게 남아있는 악기카드를 이용하여 그 악기와 같은 악기의 영역에 속하는 지를 묻고, 예, 아니오 대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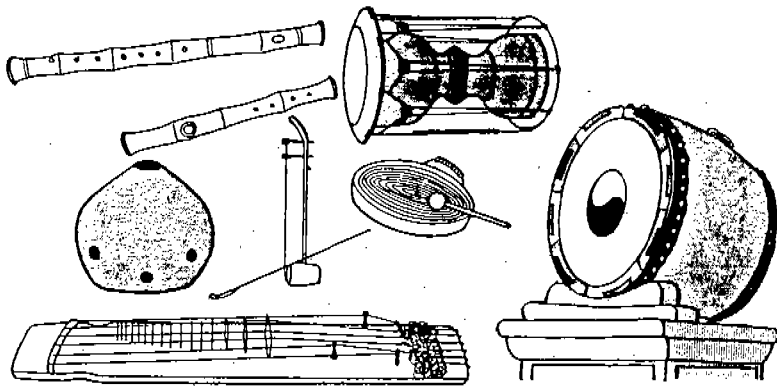
▷ 상대방 모듬 악기이름을 맞춘다.

##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분임토의

## 악통이의 도움활동

이번 시간에는 악기를 구분하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종승이와의 대결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료를 모아 봅니다. 책마다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악기가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영역에 어떤 악기들이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악기의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가지 악기의 연주방법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자료를 모두 치우고 하나씩 카드에 악기의 이름을 적어 나가면서 종승이가 잘 모를 ‘통소’를 집어둡니다. 종승이네 모듬은 어떤 악기를 뽑았을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할텐데, 종승이의 질문공세가 시작됩니다. 쇠로 만들어진 악기냐는 종승이의 질문입니다. 통소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이므로 종승이는 한번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젠 악통이 차렷니다. “두드리면 악기냐?”고 질문을 합니다. 상대모듬의 대답은 의외로 ‘Yes’. 순간적으로 여러가지 타악기가 연상이 됩니다. 종승이의 다음 질문은 날카롭게도 “부는 악기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



가, 종승이가 눈치챘을까? 난 ‘타악기’인지를 묻습니다. 타악기입니다. 나는 힘차게 팽과리를 외치지만 너무 성급합니다. 종승이의 그 다음 질문은 가로로 부는 악기인지, 세로로 부는 악기인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소를 가로로 분다고 생각하지만, 통소는 세로로 부는 악기입니다. 종승이는 세로로 부는 단소를 외치지만 아마 종승이 역시 통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다시 한 번 ‘징’을 외칩니다. 종승이가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어쨌든 악통이는 통소 덕분에 이번 게임의 승리자가 됩니다.

## 도움자료

### □ 국악기의 분류

우리의 악기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국악기의 재료는 8음(音)이라해서 모두 여덟가지가 쓰인다. 쇠붙이, 실, 대나무, 나무, 가죽, 흙, 바가지, 돌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자연이 만들어 내는 우리의 악기는 우리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게 편한 음을 내주는 악기일 것이다.

조선 고종 때(1903년경) 엮어진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우리 악기를 사용된 재료에 따라 여덟가지로 나누고 있다. 오늘날 국악기의 분류법은 재료에 따른 분류법과 서양식으로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으로 나누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 ◎ 재료에 따른 분류

- 쇠붙이로 만든 악기(금부) : 징, 나발, 편종, 특종 등
- 실을 엮어 만든 악기(사부)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등
- 대나무로 만든 악기(죽부) : 대금, 소금 피리 단소, 통소, 새납(태평소) 등
- 가죽으로 만든 악기(혁부) : 장구, 북, 소고 등
- 나무로 만든 악기(목부) : 박, 축, 어 등
- 흙을 구워 만든 악기(토부) : 훈 등

- └ 바가지로 만든 악기(포부) : 생황 등
- └ 돌로 만든 악기(석부) : 편경, 특경, 나각 등

#### ◎ 연주방법에 따른 분류

- └ 관악기 : 대금, 피리, 단소, 통소, 소금, 새납, 나발, 나각 등 관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
- └ 현악기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양금 등 실을 꼬아 만든 줄을 통기거나 치거나 활로 밀어 소리를 내는 악기
- └ 타악기 : 장구, 죽, 징, 팽가리, 소고, 박,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운라 등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

자료 : 이성재, 1994 ; 임수철, 1994.

### 3. 유의사항

- ◎ 우리악기 알기과정은 우리악기의 종류와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청소년들이 알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고 있다.
- ◎ 재미있는 기원을 가지고 있는 악기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들려주어 악기의 유래와 역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연주법, 재료, 악기의 편성 등을 기초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기를 구분한다.

## 4. 참 고

### □ 국악기의 특징

우리나라의 악기와 악기의 연주 형태에는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거문고나 가야금 등 우리의 대표적인 악기들은 온돌에서 생활해 온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에 맞게 바닥에 앉아서 연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국악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방중악’이라는 말이 있다. 방중악이란 ‘방안에서 하는 풍류음악’이라는 뜻으로 국악 중에서도 정악의 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 특유의 온돌문화가 방중악이라는 악기의 연주형태를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악기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를 매체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따라서 악기를 알면 음악의 절반은 이해하는 셈이다. 우리의 국악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고유한 악기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고유한 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악기를 열가지 이상 술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악기는 자그마치 60여종이나 된다. 이 중에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온 악기도 있고, 서역지방이나 중국 등지에서 들어와 우리음악에 맞게 개량된 악기도 있다. 물론 그 악기들이 지금도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악기에 따라서는 연주법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 실제로 현재는 30여종만이 연주에 쓰이고 있으며, 단일 민족국가로서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 □ 음악계통에 의한 국악기의 분류

앞에서는 국악기를 재료에 의한 구분과 연주방법에 의한 구분으로

나누었지만, 이 외에도 음악계통에 의한 분류법도 있다.

조선 성종때 편찬된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에 의하면 그 악기가 어느 계통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세 갈래로 분류했다. 국악의 갈래는 예전에는 아악, 당악, 향악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종류의 음악 중 아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아악기, 당악을 연주하는 악기에는 당악기, 향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향악기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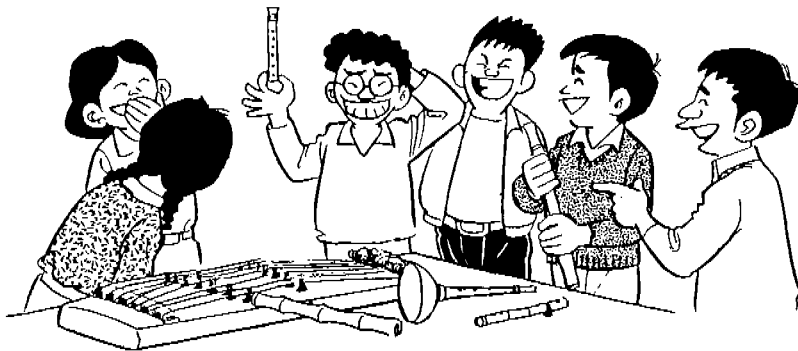
아악기에는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축, 어, 훈, 부, 금, 술, 악, 적 등이 있다. 당악기에는 박, 방향, 장구, 당피리, 아쟁, 해금, 월금, 당적, 태평소, 당비파 등이 있다. 향악기에는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대금, 초적, 소과전, 향피리 등이 있다.

그리고 계통에 의한 악기분류법에서 양금과 단소와 같은 악기가 빠진 것은 이 악기들이 「악학궤범」 이후의 악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악의 계통에 의해 악기를 분류했을 때, 아악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당악기이며 향악기는 10종을 넘지 못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국음악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정반대로 아악기와 당악기는 상당수 사라졌고, 향악기는 새로운 연주법까지 개발되어 두루 쓰이고 있음을 볼 때 중국음악문화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슬기롭게 수용하고 극복한 주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자료 : 임수철, 1994.



# 우리악기 이해하기



악기따라 몸도따라  
소리쫓아 정상까지  
악기소리 구별하기  
악기들이 모여 내는 소리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소리의 특성과 음색을 이해하며 합주곡 감상을 통해서 각 악기들이 모여서 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이해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느낌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한다.                                         | 여러가지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어 보고 그 소리를 구분한다. | 시나위를 돌으면 여러가지의 악기소리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표현한다 | 여러가지의 합주곡을 듣고 각 곡의 독특한 특징을 파악한다. |

##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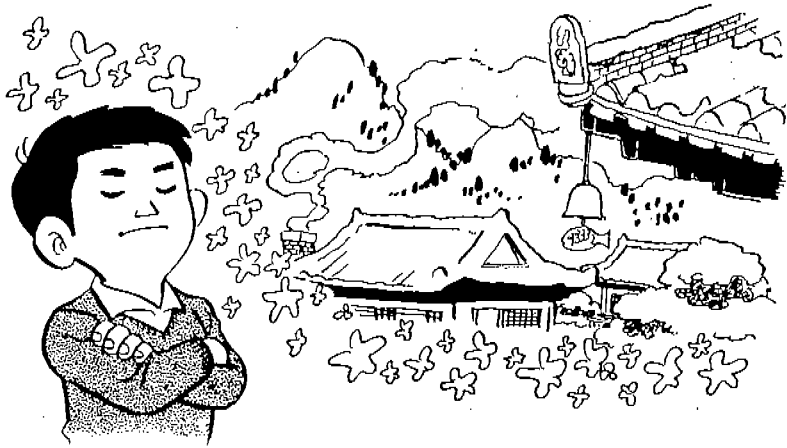
### 활 동 1 악기따라 몸도따라

#### 활동내용

- ▷ 악기를 선정하여 그 연주를 듣는다.
- ▷ 가락을 통해 전해지는 악기의 느낌을 언어와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 ▷ 악기와 잘 어울리는 어휘 또는 사물을 제시한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한다.
- ▷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을 선발하여 상을 준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분임토의



## 악통이의 도움활동

악통이는 ‘대금’연주를 듣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앉아 눈을 지긋이 감고 대금산조가 흐르는 자연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산사(山寺)의 저녁 풍경이 다가옵니다. 흐린 하늘 위로 피어오르는 장작불 연기가 그림이 되어 대웅전 귀퉁이에 매달린 풍경을 움직일 때 대금의 구성진 소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들려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마음 속 깊은 통찰의 소리가 울려 오고 악통이는 한줄기 바람이 되어 마음껏 떠다닙니다. 언제 음악이 그쳤는지 모르지만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종승이가 옆에서 허죽 웃으며 완전히 도인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끝났다고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꿈속을 드나든 사람돌처럼 숙연해진 친구들은 떠돌지도 않고 한 사람씩 나와서 느낌을 표현합니다. 명식이는 거문고의 쉼쉼하고 건강하며 힘있는 소리의 미학에 대해서 말하고 다솜이는 가슴을 저미는 해금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솜이의 ‘해금’에 대한 표현은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도 백미(白眉)입니다.

“저는 해금소리를 들을 때마다 군대간 사춘오빠가 생각납니다. 마치 그리이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조각같은 모습을 한 멋진 오빠는 서구적인 용모에 어울리지 않게 해금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데 가끔 만날 때마다 해금연주를 듣고 싶어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집에 놀러갔다 우연히 절절히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집터에 망연히 앉아 하늘을 쳐다보는 어느 흑백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빠는 몰아지경에 빠져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눈물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같은 마음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안타깝고도 절절한 사연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해금은 눈물이고 나약한 삶의 절실한 표현이라 느낍니다.”

다솜이의 설명에 주위는 조용해지고 다솜이는 상으로 해금연주곡테이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금연주를 들으며 깊이 생각에 빠집니다.

## 도움자료

### □ 대금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대금은 합주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음을 붙여 다른 모든 악기가 그에 맞추도록 한다. 따라서 국악기의 기준 음가를 측정할 때는 대금을 중심으로 한다. 대금을 만드는 재료는 대나무이다. 예전에는 대나무 중에서도 여러 해 묵은 황죽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맑고 아무진 소리가 나는 쌍골죽을 주로 쓴다. 쌍골죽이란 마디 한쪽 홈이 패어 있고 살이 두꺼우면서도 단단한 대나무인데 보통은 병이든 대나무라 하여 대밭에서 일찍 베어내는 탓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

악기모양을 살펴보면 길이는 약 2자 7치로 80여 센티 정도이고, 구경은 2센치 정도에 구멍은 10여 개이다. 맨 위에 입김을 불어넣는 취구가 있고 그 아래 청공이 있다. 청공에는 갈대 속에 붙은 얇은 청을 붙이는데 이 갈대 속청의 울림에 따라 음빛깔이 달라져 대금의 독특한 음색을 낸다. 청공아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6개의 지공과 2, 3개의 칠성공이 있다.

대금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가로로 분다.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대금을 올려잡은 다음 취구 앞쪽으로 입술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난다. 낮은 음을 낼 때에는 ‘저취’라고 해서 약하게 불고 그 이상 높은 음을 낼 때에는 보통 세기로 부는 평취법과 세게 부는 역취법을 쓴다. 저취와 평취는 부드럽고 아름다우나 비교적 어두운 편이다. 역취에 이르러 갈대 속청의 진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쾌해진다. 대금은 취구가 넓어 처음에는 소리내기가 힘들고 지공과 지공 사이의 간격이 길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은 꾸준히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대금의 운지법(손가락 쓰는 방법)은 보통 왼손의 둘째와 셋째, 넷째 손가락으로 위의 1, 2, 3공을 여닫고 오른손의 역시 둘째와 셋째, 넷째 손가락으로 4, 5, 6공을 여닫는 것이다. 대금의 아랫 부분에 있는 칠성공은 사용하지 않는다.

#### □ 해금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해금에는 줄이 두 줄 밖에 없으며 동그란 울림통은 큰 대나무의 밑 뿌리이다. 통에 해묵고 마디 많은 대를 입죽으로 꽂고 입죽 위쪽에 2개의 주아를 붙인다. 주아란 줄을 걸고 음을 조절하는 손잡이이다. 해금의 두 줄 중 안쪽 줄이 중현, 바깥 줄이 유현이다. 말총에 송진을 발라 쓰는 활은 중현과 유현사이에 넣고 울림통위를 지나면서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연주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왼손바닥으로 입죽을 잡고 손가락 안쪽에 두 줄을 오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두 줄을 움켜잡아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오른손에 잡은 활로 줄을 문지른다. 이때 왼손으로 줄을 올려잡으면 낮은 음이 나고, 내려잡으면 높은 음이 난다. 따라서 음역이 넓어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다양하게 낼 수 있으며 자유로운 농현은 해금의 음색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농현이란 현악기에서 줄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 음 이외의 여러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는 기법을 말한다. 해금의 농현법은 역안법이라 하여 줄을 당기어 쥘고 연주하는 기법을 말한다.

두 개밖에 없는 줄을 죄고 풀어 농현하며 온갖 소리를 쏟아내기 때문에 해금처럼 소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빚는 악기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현악기이면서도 해금은 관악 합주에 반드시 편성되며, 관현 합주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묘한 맛을 풍겨준다. 해금은 피리, 대금, 해금, 북, 장구로 이루어지는 삼현육각을 비롯해 궁중음악, 민속악에 두루 쓰인다.

자료 : 이성재, 1994.

## 활동 2 소리꽃아 정상까지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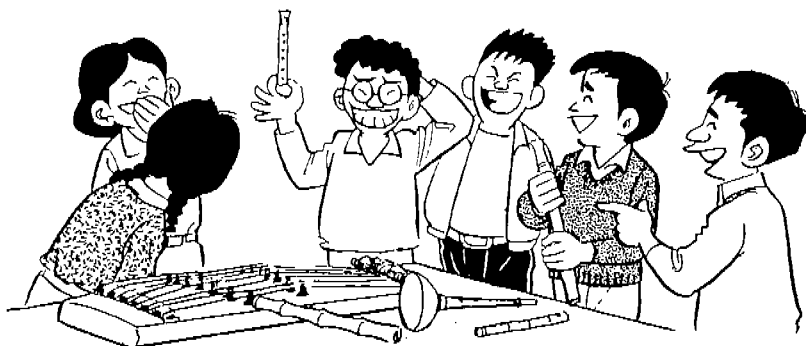
- ▷ 구할 수 있는대로 우리악기를 모은다.
- ▷ 모둠별로 대표자를 한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눈가리개를 한다.
- ▷ 악기의 소리를 하나씩 모두 들은 다음, 모둠마다 악기 하나씩을 선정한다.
- ▷ 자기 모듬의 대표가 부르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제한시간 내에 모듬의 목표지점에 도착한 사람 수가 많은 모듬을 뽑아 기념품을 준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공개토론

### 악통이의 도움활동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구해온 악기가 모두 장구, 가야금, 해금, 단소, 피리, 통소, 대금, 나발 등 8종입니다. 다솜이네 사촌오빠가 쓰는 해금으로부터 명식이네 동네 국악연구소에서 빌린 장구까지 총출동되었습니다. 모두 돌아왔어 구해온 8종의 악기 중 5개를 선정해서 하나씩 듣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모듬의 대표가 되어 버린 종승이는 씩 웃으며 앞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사이에 악기를 하나 고릅니다. 이제 각 모듬마다 악기가 하나



씩 선정됩니다. 우리 모듬은 단소, 일식이네는 피리, 삼식이네는 통소, 명식이네는 나발, 그리고 오식이네는 대금 등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종승이부터 시작해서 대표들이 자기 모듬에 할당된 악기들을 한 번씩 봅니다. 겨우 소리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푸우”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들리는 악기까지 다양합니다. 몇 번 연습하고 모두 함께 악기를 부는 가운데 우리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제한시간인 1분이 가까워오자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은 친구도 보입니다. 눈가리개를 풀고 정확한 자기 모듬에 가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일식이네 모듬이 제일 많습니다. 악통이네 모듬은 종승이의 격려와 분전에도 불구하고 그리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 인기상을 받습니다.

#### 도움자료

##### □ 가야금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가야금의 줄은 12줄로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12개의 줄은 모두 기러기발 모양을 닮은 움직이는 패(안죽) 위에 얹어 있다. 음의 높이는 안죽을 움직여 조절한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는 오른손으로 줄을 당기거나 밀거나 튕기고 왼손으로는 줄을 흔들거나 올리거나 끌어내려 갖가지 빛깔의 소리를 낸다. 그러다 보니 가야금은 연주

한다는 뜻으로 흔히 ‘뜯는다’, ‘통긴다’, ‘찢다’, ‘탄다’ 등 여러가지로 말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오른손과 왼손의 주법을 두루 나타내는 ‘탄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 거문고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거문고는 줄이 6개로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길이는 대략 5척(1미터 50센치) 정도이다. 몸통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윗면은 초승달 모양의 무른 오동나무로 되어 있고 아랫면은 단단한 밤나무로 반듯하게 붙여 만든다. 몸통의 윗면에는 16개의 패가 있다. 패란 음의 높낮이를 가려주는 받침대로 아래쪽이 낮은 음을 내고 머리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높은 음을 낸다. 거문고의 6개줄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패 위에 얹는다. 나머지 세 줄은 기러기발과 같이 생긴 안죽 위에 얹는다. 거문고는 손가락으로 타는 가야금과는 달리 술대로 연주한다. 술대란 길이가 21센티정도되는 단단하고 가는 대나무이다. 이 술대를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받친 상태로 오동나무판 위의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술대가 오동나무판에 부딪혀 부러지거나 잡음을 내지 않도록 윗면의 오른쪽 맨 윗부분의 줄 밑에는 대모(부드러운 가죽)를 붙인다. 술대로 줄을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내려칠 뿐만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 내치기도 하고 안쪽으로 당겨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왼손으로는 줄을 패 위로 누르거나 흔들어 높고 낮은 갖가지의 음을 내게 한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는 오른다리가 왼다리 밑에 들어가도록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거문고의 머리쪽을 오른쪽 무릎 위에 비스듬히 놓고 왼쪽 무릎으로는 거문고의 뒷면을 받치는 자세를 취한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는 이와 같은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거문고를 탈 때의 마음의 자세를 일컬어 ‘금사심(禁邪心)’이라 하여 마음을 깨끗히 비우고 연주에 임하지 않으면 깊은 소리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 □ 단소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단소는 대나무 중에서도 황죽이나 검은 오죽, 또는 얼룩점이 많은 소상반죽을 쓴다. 길이가 약 40센티, 안쪽구멍의 지름이 1.2-1.3센티 정도인 단소는 작은 악기이다. 취구에 아랫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 넣으면 소리가 난다. 몸체에는 모두 다섯 개의 구멍이 있고 이것을 지공이라 한다. 지공 중 아랫쪽의 1공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위쪽의 2공과 3공은 왼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막는다. 4공은 오른손 셋째 손가락으로 막고 나머지 5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단소는 독주 이외에 줄풍류나 가곡 반주에도 쓰이며 양금과의 병주, 생황과의 병주(생소병주) 등 다양하게 쓰인다.

## □ 피리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서를 입에 물고 부는 피리에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등의 세 종류가 있다. 대피리라고도 하는 향피리는 정악과 민속악에 두루 쓰이고, 피리 중 가장 많이 쓰인다. 향피리는 중국에서 당피리가 들어오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합주를 할 때 향피리가 거의 주선율을 연주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향피리의 길이는 25센티정도이고 구멍은 8개이다. 구멍을 잡는 법은 음악에 따라 ‘제대로 잡는 법’과 ‘치켜 잡는 법’ 두가지가 있다. 치켜 잡는 법이란 제8공을 쓰지 않고 한 구멍씩 올려잡고 부는 방법을 말한다. 민속악과 대부분의 정악은 제대로 잡는 법을 사용한다. 향피리를 연주할 때는 바로 앉아 서를 부드럽게 입에 물고 음악에 따라 음량을 조절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으면 된다. 향피리는 다른 악기에 비해 음역이 좁은 것이 단점이지만, 아무리 빠른 가락이라도 연주할 수 있으며 음량조절과 감정표현이 자유롭다.

세피리는 향피리에 비해 조금 작고 가늘다. 민속악에는 쓰이지 않고 정악에만 쓰인다. 음의 넓이나 구조는 향피리와 같으나 악기가 작고 가는 탓에 입김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세피리는 거문고, 풍류

가야금, 양금 등 소리가 작고 부드러운 현악기와 잘 어울려 실내에서 연주하면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당피리는 통일신라시대 때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주로 당악풍의 음악에 사용되어 왔다. 악기의 구조는 향피리와 비슷하며 재료로는 황죽이나 오죽을 주로 쓴다. 당피리는 향피리보다 조금 짧고 굽으며 서가 커서 불기가 힘들다. 음색은 굽고 묵직하면서도 향피리에 비해 약간 밝고 궁중음악에 많이 쓰인다.

#### □ 통소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통소는 단소보다 커서 길이는 55센티 정도이고 굽기는 단소의 2배가 된다. 통소는 흔히 생각하듯 옆으로 잡고 가로로 불지 않고 세로로 길게 잡고 분다. 현재 전해지는 통소는 정악에 쓰이는 것과 민속악에 쓰이는 것이 있는데 정악에 쓰이는 것은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5개이고 청공이 없으며 성악반주 등에 사용된다. 민속악에 쓰이는 통소는 지공이 위에 1개, 앞에 4개이며 갈대 속청을 붙인 청공이 있으며 주로 북청 사자놀이와 같은 가면무의 반주음악에 쓰이며 독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활동 3 악기소리 구별하기

#### 활동내용

- ▷ 시나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알고 시나위 합주에는 어떤 악기들이 사용되는지 듣는다.
- ▷ 악곡의 어느 한부분을 제시하고 모듬으로 나누어 그 부분에 사용된 악기의 이름을 찾고 악기의 별명을 짓는다.
- ▷ 그 부분에 사용된 악기를 모두 골라내고, 여러번에 걸쳐 시행하면서 이미 사용된 악기의 이름을 새롭게 짓는다.

악통이의  
도움활동

이번에는 모둠으로 나누어 시나위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 시나위 합주를 들으며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악통이네 모듬은 시나위에 대해서 자료를 뒤져봅니다. 한참 문헌을 보던 종승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시나위가 곡명이 아니고 순수 우리 음악을 뜻하는 용어란 말이야.” 그러자 명식이는 눈을 흘기며 읽어 내려 갑니다. “시나위는 멀리 신라시대의 사뇌가(思惱歌)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이 말은 신라시대부터 널리 불리던 순수한 우리 음악인 향악을 뜻하며...”, 이런 가운데 시나위 합주곡이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장구, 북 그리고 대금, 피리소리 게다가 해금소리까지 구분해 내는 다숨이의 능력에 탄복을 하며 조용히 감상합니다. 합주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합주 중 일부를 듣습니다. 다숨이는 제일 먼저 손을 들어 해금을 맞춘 후, ‘깡깡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그러자 우식이가 ‘대금 — 젓대’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질세라 다숨이가 다시 ‘장구 — 판초’라고 외쳐댁니다. 우리는 모두 웃습니다. 거뜬 다숨이가 가야금, 거문고를 맞춰 우리 모듬이 승리합니다. 모두들 다숨이에게 탄복하며 다시 한번 시나위 합주를 들으며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신라의 향가에 사뇌 또는 사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용어들은 이후에 ‘시내→시나이→시나위’로 와전되었다고 한다. 시나위의 악기 편성은 타악기와 관악기인 대금과 피리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의 현악기들이 첨가된다. 시나위 음악은 산조와 마찬가지로 장구가 장단을 잡아 이끌어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장구가 빠지는 일이 없다.

시나위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도지방의 무악으로서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음악으로 꼽힌다. 무의식에 사용되던 원형 시나위와 최근에 무대화된 연주 시나위로 나뉘어진다. ‘불협화음의 음악’, ‘부조화의 음악’으로 설명하는 시나위 음악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현장, 곧 연주장소에서 즉흥적으로 창작해가는 음악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나위라는 음악은 같은 것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장음악이며, 즉흥연주이다. 시나위는 연주자간에 본청(기본음)만을 같게 한 후에 바로 연주하며, 넓은 의미의 계면조 안에서만 가락이 놀게끔 한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나위를 듣게되면 개개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선율과 독자적인 악곡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성과 완벽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자의 선율이 모여서 하나의 악곡을 형성하면서도 조화와 균형미가 있다.

#### ○ 시나위 감상자료

「시나위 합주(굿거리)」. (해금산조/ 아쟁 산조 SRCD - 0020/ 장구: 박종설/아쟁: 박종선/대금: 김방현/해금: 김찬섭/피리: 한세현/징: 전정민 등)

원형 시나위에서는 해금과 같은 현악기는 편성되지 않는데, 현악기가 포함된 연주시나위는 다소 즉흥성과 현장성이 희석되고 주자들의 호흡이 보다 정제되어 있다.

자료: 월간음악, 1994. 12.

## 활동 4 악기들이 모여 내는 소리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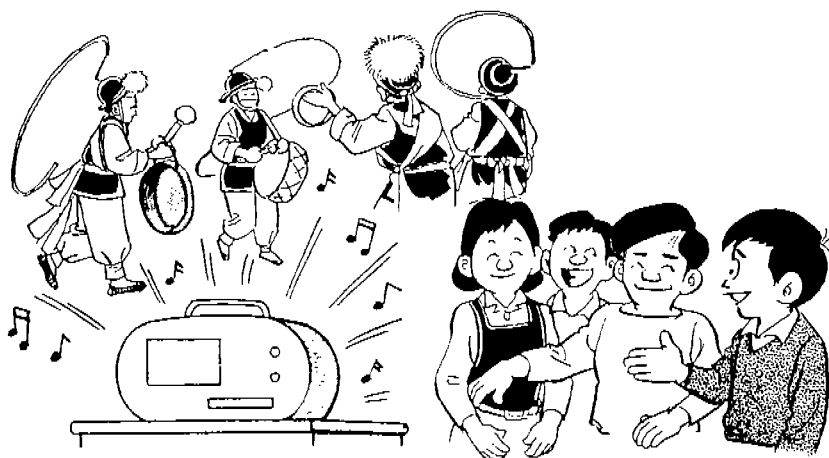
- ▷ 악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다.
- ▷ 각각의 연주를 모듬별로 선택해서 감상하고 느낌을 정리한다.
- ▷ 전체적으로 그 연주에서 어떤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발표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분임토의

### 악통이의 도움활동

‘현악 삼중주’는 알면서도 ‘삼현육각’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악 삼중주는 감상할 기회가 적지 않게 있는데 비해서 삼현육각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현육각은 두개의 피리, 대금, 해금, 북, 장구로 구성된 악기편성입니다. ‘대풍류’라고도 하며 주로 무용반주음악에 사용됩니다. 또한 악통이는 요즈음 국악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물놀이’에 관련된 자료를 찾습니다. ‘사물놀이’는 네가지 악기 즉, 팽파리, 징, 장구, 북을 가지고 노는 놀이입니다. 이들 모두는 타악기로 전통적인 민속악기입니다. 악통이네



모듬은 사물놀이 음반을 듣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다가 격정적으로 변화하는 사물의 오묘한 조화와 강약은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었다 다시 조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물은 전통적인 악기편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악기의 모습을 재편성하고 재창조하는데 큰 도움을 준 현대의 전통악기 편성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승이는 자료를 보면서 ‘사물놀이만큼 신나는 음악은 없을 것’이라며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하면서 용돈을 모아 팽과리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음반감상을 마친 후, 악통이가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각 악기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팽과리는 ‘사물놀이’의 가락을 엮어 나가는 지휘자이고 징은 마치 어머니의 모습처럼 가끔 한 번씩 쳐 주며 전체 가락을 푸근하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장구는 전통음악에서 가장 필요한 악기로 박자의 빠르기나 전체 리듬을 엮어가는 악기로 팽과리와 함께 보완하여 가락을 지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들 소리의 어울림에 대한 발표를 하고나니 언젠가 꼭 한번 사물놀이를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 도움자료

### □ 삼현육각

삼현육각(三絃六角)은 북, 장구, 해금, 대금, 피리가 어울리는 것을 말하며, 감상음악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풍류라 하고 무용음악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악기편성은 같으나 용도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악기에 있어서 현악기는 주로 노래 반주에 쓰이는 반면, 관악기들은 무용반주에 많이 쓰였다. 관악기의 경쾌하고 생동감있는 가락과 박자를 타고 놀면 춤이 절로 난다.  
자료 : 월간음악, 1994. 8.

### 3. 유의사항

- ◎ 우리악기 이해하기과정은 여러가지 악기의 음색과 그 특성을 직접 들어 구분해 보고 악기소리의 어울림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악기의 소리가 지닌 특징을 수동적인 자세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징을 직접 표현함으로써 악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 ◎ 다양한 국악기 편성을 이해하여 서양의 악기 편성과 비교한다.

### 4. 참 고

#### □ 국악기의 편성

오늘날 국악의 악기편성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편성이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융통성있게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악기는 악기들의 음색이 개성적 또는 배타적일만큼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많기 때문에 예부터 병주(2중주-3중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세악(3중주-5중주)도 주로 여성적인 음색을 나타내는 악기로 구성되고 있다.

#### ◎ 병주

「생황과 단소」, 「양금과 단소」, 「거문고, 가야금, 비파」

#### ◎ 세악

「세피리, 단소, 양금, 거문고, 장구」

「세피리, 단소, 양금, 생황, 장구」

「세피리, 단소, 양금, 해금, 장구」

### ◎ 합주

위의 소규모 편성보다 악기 수가 많아지면 합주라고 불린다. 합주는 관악합주와 현악합주로 나뉘어지며, 가장 규모가 큰 연주형태를 「관현악」이라고 한다.

### □ 대취타에 쓰이는 악기

옛날에 일종의 행군악으로 쓰이던 위엄있는 곡으로 무녕지곡(舞寧之曲)이라고도 한다. 취타라는 말은 불고(吹) 치는(打) 형태의 음악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취타는 임금의 거동, 현관의 행차, 군대의 행진이나 개신 등에 쓰였으며 태평소와 일정한 음이 없는 취악기와 타악기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나발

국악기 중 유일한 금속관악기이다. 한가지의 음만 길게 낼 뿐 선을 은 없다.

### ◎ 나각

소라의 뿔쪽한 끝에 구멍을 뚫고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나발과 마찬가지로 한가지의 소리만 내는데 소라에 따라 음빛깔이 조금씩 다르다.

### ◎ 자바라

낚시를 펴서 만드는데 절에서 쓰는 무거운 바라로부터 춤추는 사람이 끈을 두 손가락에 끼고 치는 향발까지 크고 작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취타 이외에도 불교의식무용, 무악 등에 쓰이는 악기이다.

### ◎ 용고

북통에 용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북가죽이 아래위로 되도록 허리춤에 매어달고 양손에 북채를 쥐고 친다.

### □ 제례악에 쓰이는 악기

제례악용 타악기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쓰이는 것도 있지만 의식

과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편성되기도 한다. 제례악에 쓰이는 타악기에는 박, 축, 어, 특종, 편종, 편경, 진고, 절고 등이 있다.

#### ◎ 박

길이 40센티 정도의 박달나무 판자쪽 여섯개를 사슴가죽끈으로 꿰어 만든 타악기이다. 박을 치는 사람은 ‘집박’이라 하여 지휘자 내지 음악감독의 역할을 한다. 박은 관현악, 관악합주, 제례악 등에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사용되며 무용에서는 춤사위의 변화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 ◎ 축

음악의 시작을 신호하는 악기로 동쪽에 놓는다. 악기의 생김새는 푸른 빛깔의 나무꺾꽂이 모양인데 위편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어 여기에 나무로 만든 축퇴를 꽂아 밑바닥을 내려친다.

#### ◎ 어

음악의 끝을 알리는 악기로 서쪽에 놓는다. 나무로 만든 흰 호랑이 등 위에 27개의 톱니가 붙은 모양이 악기라기 보다는 특이한 장식품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를 연주할 때는 9갈래로 쪼개진 대나무채(어채)로 호랑이의 머리를 세번치고 등의 톱니를 한번 긁는다. 이것을 세번 함으로써 음악을 끝낸다.

#### ◎ 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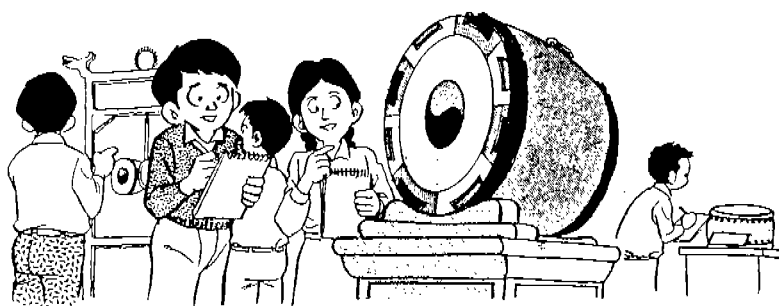
단단한 경석으로 만든 16개의 「ㄱ」자 모양의 돌을 매단 것으로 편종과 짝을 이룬다. 각퇴(소의 뿔)로 경의 긴 쪽 끝을 친다.

#### ◎ 편종

16개의 종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8개씩 매달았으며 종의 크기는 모두 같지만 그 두께가 조금씩 다른데 종이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다. 각퇴로 종의 아래 둥근 표를 한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낸다.

자료 : 김용진, 1993.

# 우리악기 의미찾기



모의악기 만들기  
기악곡의 백미, 산조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비교  
악기전시장을 찾아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악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정신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악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악곡의 백미인 산조를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음악의 미적인 요인을 발견하며, 악기전시장 견학을 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주위의 재료를 이용해 모의악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악기의 소중함을 안다.                                     | 여러가지 악기로 연주되는 산조를 감상한다. | 서양악기와 비교하여 볼 때 국악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 국악기가 전시된 곳을 방문하여 국악기를 직접 관람한다. |

## 2. 활동내용

### 활 동 1 모의악기 만들기

- 활동내용**
- ▷ 우리악기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정리해 보고 악기의 기본적인 보관법을 안다.
  - ▷ 악기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비디오를 관람한다.
  - ▷ 주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유사한 악기를 만든다.
  - ▷ 각자가 만든 악기를 하나씩 연주해 보고 합주를 한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역할연기



## 악통이의 도움활동

악통이는 우리 악기에는 징과 팽과리처럼 쇠붙이로 만든 것과 장구와 같이 가죽으로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대금 등 대나무로 되어진 것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종승이가 우리자연은 바로 악기라고 점잖게 가르쳐줍니다. 종승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국악기의 재료는 8음(音)이라고 해서 모두 여덟가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쇠붙이, 실, 대나무, 가죽, 나무, 흙, 바가지, 돌 등입니다. 종승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댁에 놀러가면 그 동네에 장구를 만드는 아저씨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어느 집이나 장구 하나쯤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께서는 집 앞에 굵은 줄을 매어 가공한 가죽을 말리고, 하루 종일 나무를 깎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모둠에서 보는 비디오테이프도 어릴 때 시골동네 아저씨가 하던 일과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란을 마친 악통이는 못쓰는 쓰레기통을 달력종이로 막은 후, 옆으로 눕혀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마치 장구인 것처럼 만들어 종승이에게 두들기게 합니다. 리듬과 박자감이 있는 종승이는 가끔 책상을 두들기는 훈련으로 다른 사람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나무판의 양쪽 끝에 각각의 못을 친 후, 그 곳에 실과 고무줄을 달아 놓은 명식이, 풀과리를

구해 온 악통이 등 모두가 다숨이의 지휘로 신나게 연주를 합니다.

## 도움자료

### □ 국악기의 보관 및 관리법

악기는 그 특성과 사용된 재질에 맞게 관리하여 원래의 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성물질이 재질로 된 팽과 리와 징은 치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보관하되, 팽과리는 거의 일정한 부위를 치기 때문에 오래 치다보면 치는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때 나무망치로 두들겨 면을 고르게 유지시켜 관리한다. 그리고 나무 통에 가죽을 대서 만든 장구와 북은 특별히 가죽의 성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구는 아예 구입했을 당시에 양쪽의 가죽에 충분히 물을 적신 상태에서 조립하여 가죽이 마르면 탄력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용 중에도 가죽이 경직되면 편에 조금씩 물을 발라 사용하면 되고 무엇보다 부전을 완전히 풀어 놓은 상태에서도 제소리가 나도록 유지해야 한다. 북의 경우에는 물보다는 막걸리를 발라서 보관하도록 하며 가죽이 너무 늘어나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에는 가죽을 서로 묶어주는 줄을 잡아당겨 팽팽하게 조여주면 된다. 그리고 장구와 북은 편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활동 2 기악곡의 백미, 산조

### 활동내용

- ▷ 좋아하는 악기에 따라 모듬을 만들어 그 악기로 연주되는 산조를 감상한다.
- ▷ 산조에서 장구 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의하고 들어본다.
- ▷ 자신이 들은 산조를 다른 모듬에게 들려 주고 그 느낌을 이야기한다.
- ▷ 산조라는 음악형식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요소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산조의 특징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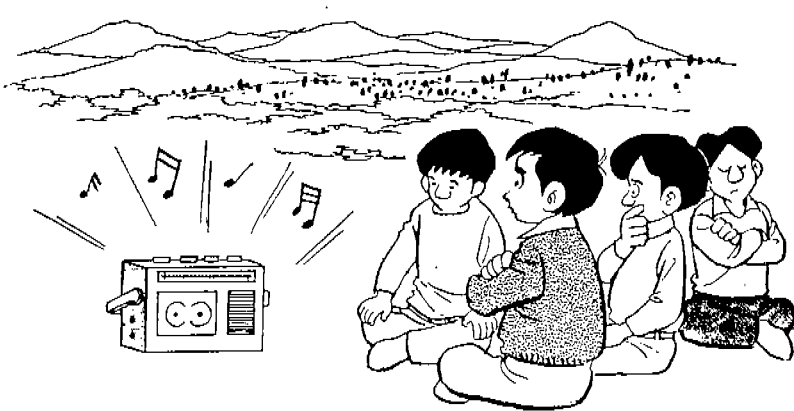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워크샷

악통이의  
도움활동

우식이는 거문고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연주를 감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거문고를 탄 경험도 있습니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기상과 힘있는 정기를 느끼게 하는 악기입니다. 거친 듯하면서도 오묘한 음색의 거문고는 남성미가 물씬 납니다. 우식이는 거문고를 좋아하는 대식이와 함께 같은 모듬이 되어 거문고 산조를 감상합니다.

대식이는 거문고 산조가 나오는 동안 어디선가 장구를 찾아와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두드립니다. 장구는 마치 서양음악에서 피아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조는 시나위음악과 마찬가지로 장구가 장단을 잡아서 이끌어가는 음악입니다. 이처럼 대식이의 설명을 듣고 다시 거문고산조를 들어보니 그 진양에서부터 단모리에 이르기까지 차츰 빨라지는 장단의 묘미가 대단합니다. 우식이는 대식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거문고 산조의 감상 느낌을 전해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유식한 대식이 덕분에 산조



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대로 줄을 내리쳐 만들어내는 가락에서 무한한 힘과 대륙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같은 호방하고 자유로운 멋과 낭만 그리고 남성미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자 앞에서 들던 희수가 “산조의 맛은 장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락의 색깔에도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과 대금산조에서의 색깔 즉, 조(調)의 음색은 산조의 각 유파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유의 맛을 내는 주요한 도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산조가 듣기 편한 음악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상세계를 무한히 끌고 가는 한과 격정 그리고 판조와 부드러움의 양면을 넘나드는 소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 도움자료

### □ 산조

산조는 홀은 가락, 혹은 허튼 가락이라고 한다. 의미 그대로 가락을 흐트려 놓아 허튼 수작을 한다는 뜻이다. 산조의 발생은 조선 후기 유행하고 있던 여러 민중적인 음악양식이 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을 풍미하던 풍물굿, 민요, 풍각, 판소리, 굿판 등의 음악들이 융해되어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조는 굿판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시나위에서 태어나 판소리의 장단과조를 바탕으로 키워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의 악사들이 자신의 악기에 즉흥적으로 허튼 가락을 얹어 연주했다. 이러한 시나위 중 각 악기들이 독립된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산조가 생겨났다. 비슷한 시기에 백낙준이 거문고 산조를 만들고 박종기가 대금산조를 만들었고 피리, 대금, 아쟁, 통소, 단소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악기 고유의 음색과 느낌과 악사의 독특한 해석이 첨가되고 산조는 다양한 유파를 형성해가며 오늘날도 그 줄기를 뻗고 있다. 산조의 구성원리는 장단과 조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면 산조의 멋을 한층 깊게 느낄 수 있다. 산조는 판소리보다 체계적인 장단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장단을

타야 산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 ◎ 산조의 장단과 조

산조의 장단구조는 진양이라는 아주 느린 장단에서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로 차츰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단의 진행으로 보아 산조는 진양이라는 아주 호흡이 긴 장단을 타며 차츰 장단을 몰아가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이 하나의 악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한 장단의 구조 안에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다. 산조의 색깔을 더욱 높히는 것이 바로 조이고, 조는 곧 가락의 색깔이다. 시나위같이 계면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산조는 판소리와 같이 씩씩한 우조나 우수어린 계면조, 그리고 경기민요 가락같이 담담하고 정겨운 경드름, 그리고 강산제 가락들이 산조에 담긴 가락의 색을 입혀준다. 그래서 산조마다 시김새(기악선율)가 다른 것이다. 대개의 산조가 노래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연주자의 해석과 느낌에 따라 시김새는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활동 3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비교

### 활동내용

- ▷ 악기를 기본적인 연주법에 의해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어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속하는 지를 찾는다.
- ▷ 판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중심으로 모듬을 나누고, 각 영역에서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하나씩 선정하여 비교한다.
- ▷ 각각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과 음역, 대표적인 연주곡 등을 살펴보고 악기의 장단점과 그 느낌을 표로 정리한다.
- ▷ 토의의 공통점을 찾아서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리한다.

### 활동방법

           구안법 ☒ 토론 ☒ 강의 ☒ 워크샷            공개토론



### 악통이의 도움활동

우리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둠으로 나눕니다. 현악기 모둠에 들어간 악통이는 현악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악기의 바이올린과 우리악기의 가야금을 선택한 후, 그 비교점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비교사항  | 바 이 올 린  | 가 야 금   |
|-------|----------|---------|
| 느 낌   | 절제된 차가움  | 절절한 따뜻함 |
| 표 현   | 지성적      | 감성적     |
| 음 색   | 금속성      | 식물성     |
| 연 주 곡 | 지고이네르바이젠 | 산조      |

각 모둠마다 우리악기와 서양악기를 비교한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합니다. 우식이와 서양악기는 심장박동의 템포를 따르는 반면에 우리악기는 호흡의 주기에 따른다고 먼저 이야기하자, 다른 친구들이 한가지씩 서양악기와 우리악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종승이가 점잖게 말합니다. “서양음악은 분석적이며 화성적인 음악인데 반해, 우리 음악은 종합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승이의

말에 수궁하며 함께 박수로서 시간을 마칩니다.

## 도움자료

### □ 우리만의 현악기연주기법, 농현

농현이란 거문고와 가야금, 해금, 아쟁과 같은 현악기의 왼손연주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농현은 연주되는 음악에 따라 다르고 연주자의 능력과 음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음악의 멋은 농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음악을 그만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현에는 서양음악의 비브라토와 같이 떨어지는 요성, 흘러 내리는 퇴성, 흔들림없이 평으로 내는 평성 등 3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은 아무 음이나 연주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음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 지역에 따라 음악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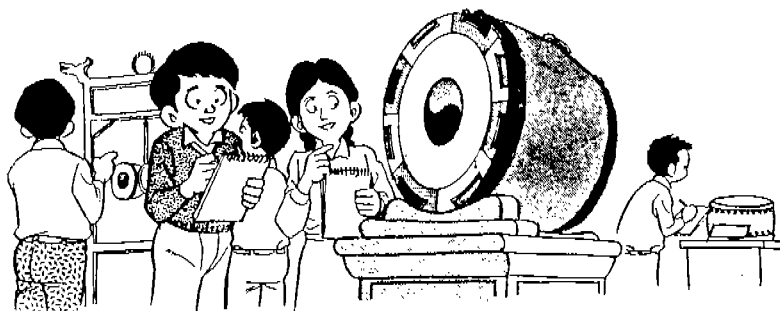
## 활 동 4 악기전시장을 찾아

### 활동내용

- ▷ 방문할 장소를 선정하고 조사할 내용 등을 미리 결정한다.
- ▷ 악기전시장을 방문하여 악기의 모습과 생김새를 관찰하여 각 악기의 소리나는 구조에 대해 탐색하고 연주법을 생각한다.
- ▷ 관찰한 악기의 이름과 설명을 방문일지에 기록하고 악기의 인상적인 모습을 순간적인 스케치로 남기거나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긴다.
- ▷ 방문이 끝난 후 자신의 글이나 그림, 사진자료를 발표하고 느낌을 토의한다.

### 활동방법

   시청각    토론    강의    구안법    현지답사



## 악통이의 도움활동

악통이와 다솜이 그리고 종승이는 우리악기를 더욱 잘 알기 위해 국립국악원의 전시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모여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혹은 악기점 진열장에서 얼핏 본 정도가 국악기와의 만남의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국악원에는 국악기 전시장이 있는데 국립국악원 소극장 1층과 2층 복도 본관 건물 1층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우리의 악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통이와 친구들은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등 우리악기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멋지고 바른 연주가 될 지 생각합니다. 다솜이는 가야금을 환상적으로 타는 모습을 그리는 듯한 표정입니다. 종승이가 말을 건네도 다솜이는 전혀 대꾸없이 가야금을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다시 한 번 보는 등 가야금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거문고를 적습니다.

### 〈방문일지〉

- 악기 이름 : 거문고
- 악기 설명 : 6개의 현으로 구성된 악기, 해죽으로 만든 술대로 치거나 뜯어서 소리를 냄. 고구려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해짐
- 악기 느낌 : 가야금에 비해 무겁고 장중한 소리를 주는 악기

이 곳 저 곳 둘러본 후, 악통이는 해금을 사진기로 찍고, 그림을 잘 그리는 종승이는 가야금을 멋있게 그려서 다솜이에게 주며 서로 악

기를 본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 3. 유의사항

- ◎ 우리악기 의미찾기과정은 우리악기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우리악기가 가장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산조의 의미, 기본적인 장단과 조, 기본형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악기가 가지고 있는 미적인 요소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비교와 악기전시장 방문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악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 4. 참고

#### □ 산조의 유파와 명인들

산조는 한 인물에 의해 창작된 개인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민족 기층음악의 역량이 응집된 시대성을 지닌 양식이기 때문에 음악양식이 확립되자 빠른 속도로 기층민중들 속으로 퍼져나갔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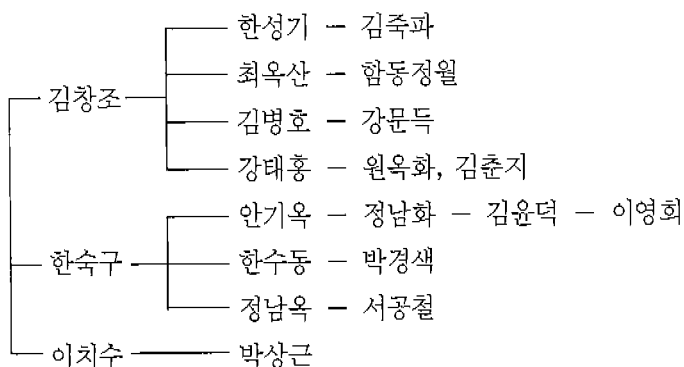
그러므로 산조의 시조를 누구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흔히 남도 김창조(金昌祖, 1865-1920)가 가야금산조를 만든 시조로 알려져 있으나, 동시대에 충청도에서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김창조의 시조설은

단정짓기 어렵다. 다만 김창조가 가야금산조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 중의 한 사람임은 분명하고 그러므로 산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가야금 산조의 출현 이후 빠른 속도로 다른 악기의 산조들도 속속 만들어졌다. 거문고가 다음 순서였는데, 백낙준(1876-1930)은 당시 선비들의 악기로 추앙받고 있는 거문고를 가지고 산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통소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아쟁산조, 단소산조 등이 성립되어 산조는 이제 거대한 음악양식으로 자리를 잡아 오늘날 민속음악 중 기악음악의 꽃으로 추앙받고 있다. 각 악기별 유파분류를 통해 산조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가야금산조

산조의 효시는 가야금산조이다. 그만큼 가야금산조는 유파도 다양하고 음악적인 특징도 다채롭다.



### ○ 김죽파류

김죽파는 가야금산조의 시초로 알려진 조부 김창조에게 일곱살까지 직접 가야금을 배웠다. 그리고 김창조가 사망한 이후로는 김창조의 제자였던 한성기에게 할아버지의 가락을 온전히 전수받았다. 그 뒤 할아버지와 스승 한성기의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가미하여 완성한 가락이 바로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이다. 김죽파류의 가야금산조는 김창조 가락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가야금산조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섬세한 농현과 저음이 풍부한 점 등 다른 산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가야금산조를 대표

하는 유파로 사랑을 받고 있다.

#### ○ 성금연류

성금연은 광주에서 자라 일곱살에 최옥산에게 가야금산조를 익히기 시작하였으며 안기옥, 조명수 등에게 남도의 가야금 가락을 배웠으나 이차수의 제자 박상근에게 충청도 가락을 전수받았다. 그로 인해 남도가락과 충청도의 가락을 접목시킨 새로운 산조로 자리잡게 되었다. 가야금의 여러 유파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여성적인 산조이고 가락이 화사하다. 가야금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하고 화려한 농현과 기교를 최대한 살린 그의 가락은 가야금산조에 심취하게 만든다.

#### ○ 최옥산류

최옥산의 본명은 최막동이라 알려져 있으나 그 밖에 자세한 행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가 월북한 음악인이기 때문이다. 최옥산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이라기보다는 거문고와 같은 남성적인 힘을 느낄 수 있어 다른 유파들과 크게 구분된다. 또한 정교한 짜임새와 선명한 선율전개 등은 정평이 나 있다.

#### ◎ 거문고산조

가야금산조가 형성되자 가장 먼저 산조를 만든 악기가 거문고이다. 거문고는 백낙준에 의해 창시되어 박석기와 신패동 등이 그의 뒤를 이었다. 백낙준의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로 구성되며 30분 미만의 곡이다. 박석기 자신은 연주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한갑득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길러내 거문고산조에 커다란 공헌을 한 인물이다.

가야금산조가 여성적이라면 거문고산조는 남성적이다. 술대로 줄을 내리쳐 만들어내는 가락은 무한한 힘과 호방하고 자유로운 멋과 낭만을 느끼게 한다.

백낙준 ———— 박석기 ———— 한갑득 ———— 원광호  
                    |  
                    | ———— 신패동 ———— 김영재

#### ◎ 대금산조

대금이 산조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박종기(1888—1947)에 의해서

박종기 ———— 한주환 ———— 이생강, 서용석  
                   └── 한범수 ———— 홍종진  
강백천 ———— 김동표, 김부익쇠, 이엽

해금산조는 지용구가 경기지방의 무속선율을 정리하여 만든 해금 시나위를 이어 받아 완성한 산조로서 지역회류 해금산조와 전라도 지방의 무속선율을 근간으로 하여 만든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양대 산맥이 있고 최근에는 대금산조의 명인 서용석이 짠 서용석류 해금산조와 김영재가 만든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있다. 해금산조는 무엇보다도 해금의 해학적이고 아기자기한 맛에 있다. 특히 지역회류는 경기무속의 가볍고 발랄한 가락의 진행과 다양한 조성으로 인해 경쾌한 맛이 있고, 한범수류는 남도 계면조의 걸출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장기이다.

아쟁은 어떤 악기보다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악기로 보인다. 특히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아쟁의 가락은 남도 계면조에 어울리며 산조를 연주하는 데 있어 아쟁은 가장 표현력이 좋은 악기라고 할 수 있다. 아쟁이 궁중악기로만 쓰이다가 민속음악에 처음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박성옥(1908~1983)이 창극반주에 아쟁을 연주하면서 부터이다. 그 뒤로 한일섭(1929~1973)은 아쟁산조를 창시하여 아쟁산조의 역사는 겨우 삼십년 안팎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성금연 가야금산조」(고수:김명환/성음 SEL-RS 145(1LP)/1984년 녹음), 남도 경기가랄이 적절히 융합되어 듣기 좋다.

「지애리 가야금산조」(느린 중중모리－중중모리/가야금：지애리/  
장구：김청만/SRCD-1137 주둔번호 IS 4077), 가락이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리듬이 흥겨워서 대중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  
는 산조이다.

「신쾌동 거문고산조」(고수：김재선/아세아 레코드 ALS 1040  
(1MC)/1960) 이 음반은 거문고산조 음반 가운데 가장 명반으로  
평가되며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다.

「원광호 거문고산조」(엇모리－중중모리/거문고：원광호/장구：김  
청만/SRCD-1122 IS 4074)

「서용석 대금산조/박종선 아쟁산조(진양조)」(대금：서용석/아쟁  
：박종선/장구：김청만/SRCD 1035)

「이생강 대금산조」(고수：이성진/대성음반 DAS-0238 (1LP)/  
1984)

「김영재 해금 연주회」(중중모리－자진모리/SRCD-1192)

# 우리악기 연주하기



두드리는 악기의 세계로  
네개가 모여 사물  
부는 악기의 세계로  
함께 벌이는 악기판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직접 장단을 쳐보고 부는 악기를 익히며 사물놀이와 악기판을 만들어 봄으로써 악기 연주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체험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반주로 쓰이는 북이나 장구를 선택하여 장단치기의 중요성을 알고, 장단을 친다.                                        | 네 사람이 모여 사물놀이를 한다. | 관악기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불어보고 기본적인 연주법을 익힌다. | 여러 악기를 모아 악기연주판을 벌인다. |

## 2. 활동내용

### 활동 1 두드리는 악기의 세계로

#### 활동내용

- ▷ 타악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고른다.
- ▷ 각 악기별로 모듬을 나누어 가락과 장단을 익힌다.
- ▷ 각 모듬별로 한명을 뽑아 시범공연을 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워크샷 ☐ 역할연기



## 악통이의 도움활동

종승이는 신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두드리는 세상이 왔거든요. 물건만 보면 두드리고 싶어서 못견디는 종승이에게 이번 시간은 고기가 물을 만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구, 징, 팽과 리, 소고 중에서 종승이는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며 소고를 고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두드리려는데 옆에서 악통이가 옆구리를 찔러서 앞을 보니 전통타악기의 연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자 종승이는 어정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싫어해야 할지 몰라서일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두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이 상할거라는 점과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두면 좋겠구나하는 생각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여하튼 악통이와 한 모듬이 된 종승이는 선생님의 지도로 소고의 가락과 장단을 열심히 배웁니다. 복채를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고를 손에 들고 춤을 추며 치는 법까지 익힙니다. 그런 다음 모듬별로 제일 잘 두드리는 사람을 뽑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종승이가 탁월한 실력으로 일인자가 되더니 결국 다른 모듬의 대표로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잘 두드린다고 평가를 받아 시범연주로 다솜이의 노래로 ‘경복궁 타령’을 반주합니다.

## 활동 2 네개가 모여 사물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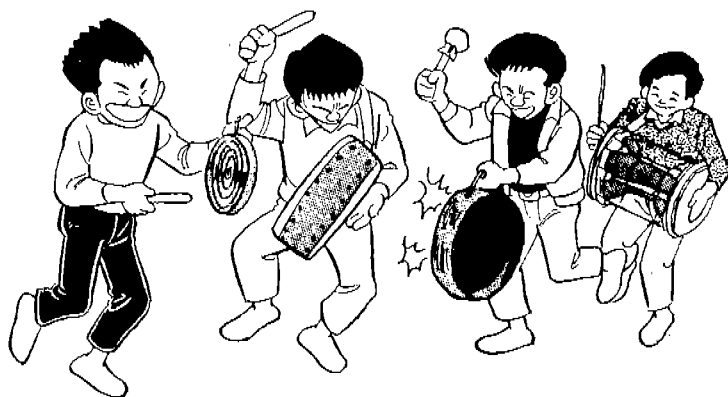
- ▷ 사물놀이의 역사와 특징을 관련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 ▷ 각자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가락과 장단을 익힌다.
- ▷ 네개의 악기가 한 조를 이루어 연습을 한다.
- ▷ 각 모듬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축하공연을 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현지답사

### 악통이의 도움활동

기대하던 ‘사물놀이’시간입니다. 사물놀이는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네가지 타악기가 모여서 신명나게 노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전통활동이라기 보다는 현대의 감각에 걸맞게 꾸며진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중승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팽과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숨이는 징을, 명식이는 장구를, 마지막으로 악통이는 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로 사물을 치는 기본동작을 익힙니다. 우리는 징을 한번치고 빙그르르 돌며 스스로 도취해 있는 다숨이를 보며 팽과리를 잡았다가는 온 동네를 혼자서 헤집고 돌아다녔겠다고 놀리며 흥겹게 배웁니다. 어느 정도 타법과 동작의 흥내를 낼줄 알게 된 네 사람은 각자 연습한 후, 한



자리에 모여 종승이의 팽과리를 필두로 한바탕 두들깁니다. 글썽 나중엔 녹음을 틀어보니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는 않은 소리가 나오는 걸보면 사물이 참 잘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한 모듬이 된 악통이의 사물모듬은 다른 모듬과의 경연을 한 후, 모든 모듬이 모여 집단 사물놀이를 즐깁니다.

### 활동 3 부는 악기의 세계로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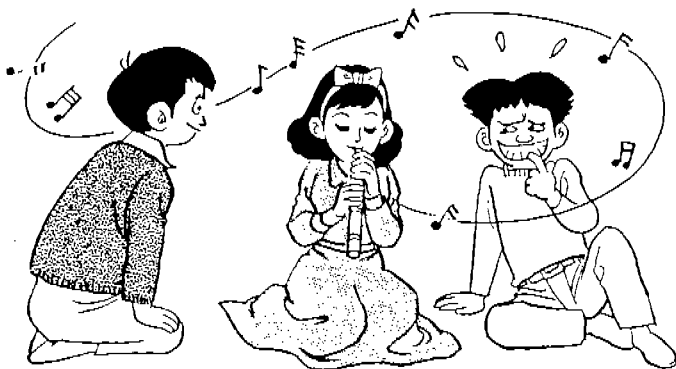
- ▷ 관악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고른다.
- ▷ 각 악기별로 모듬을 나누어 호흡법과 악기 연주법을 익힌다.
- ▷ 한 번에 가장 오래 부는 사람을 뽑아 관악기 구조를 설명하도록 한다.
- ▷ 각 모듬별로 관악기곡을 연주한 후, 가장 잘한 모듬을 뽑아 시상한다.

####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분임토의

#### 악통이의 도움활동

악통이는 우리 관악기 중에서 ‘단소’에 흥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국악을 알고 배우자’라는 열풍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악기가 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소리 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값이 싸기 때문에 합성수지로 대량 생산한 단소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단소의 원래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듣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 악기를 익히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같아 왠지 한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모듬을 구성하여 보니 단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혜란이, 명준이 등과 함께 단소의 호흡법과 연주법을 익힙니다. 혜란이는 국민학교 때부터 단소를 배워왔기 때문에 솜씨가 제법입니다. 그런데 명준이는 사실 단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란이에게 마음이 끌려 단소를 배우는 모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곡을 해란이가 단소로 청아하게 연주하니 입이 벌어져서 달을 줄을 모릅니다. 악통이는 해란이에게 개인교습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명준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요? 참으로 명준이의 얼굴이 진지합니다. ‘단소배우기’의 시간이 지나고 다 함께 모여서 누가 폐활량이 많고 요령있게 오래 불 수 있는가를 가립니다. ‘단소’와 ‘대금’그리고 ‘피리’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한 번에 오래 불 수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옆에서 명준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결의에 가득차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앞에 나아가 단소를 깨끗이 문지른 후, 혼신의 힘을 다해 길게 불니다. 결국 해란이의 마음이 명준이에게 이어져 가장 잘 부는 친구로 뽑힙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단소’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단소는 「악학궤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순조 이후 통소를 개량해 만든 악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길이가 약 40센티미터, 안쪽 구멍의 지름이 1.2-1.3센티미터 정도인 단소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작은 악기입니다. 맨 위에는 U자 모양의 취구가 있습니다. 취구에 아래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 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몸체에는 모두 5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것을 지공이라고 합니다. 지공 중 아래쪽의 1공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위쪽의 2공

과 3공도 왼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막습니다. 4공은 오른손 셋째 손가락으로 막고 나머지 5공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 모듬은 단소로 ‘태평가’를 열심히 연주하지만 결국 피리로 ‘노들강변’을 멋지게 분 다듬이네 모듬이 가장 잘한 조로 뽑힙니다.

## 활동 4 함께 벌이는 악기판

### 활동내용

- ▷ 여러가지 악기를 모은다.
- ▷ 자신이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정한다.
- ▷ 적당한 곡을 선정하여 연주판을 벌인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현지답사

### 악통이의 도움활동

현악 삼중주는 알면서도 삼현육각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지 않지만 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악 삼중주는 감상할 기회가 적지 않은 데 비해서 삼현육각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현육각은 피리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북 하나, 장구 하나로 구성된 악기입니다. 악통이는 요즘 국악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물놀이’에 관한 자료를 찾습니다. ‘사물놀이’는 네가지 악기인, 팽과리, 징, 장구, 북을 가지고 노는 놀이입니다. 사물은 전통적인 악기편성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우리악기의 모습을 다시 편성하고 재창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전통악기의 현대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종승이는 자료를 보면서 무척 신나는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승이와 악통이 그리고 명식이와 다듬이는 사물놀이의 악기를 모으기로 하고 하나씩 장만해 옵니다. 전문적인 사물놀이패의 연주를 들은 후, 악통이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선정합니다. 악통이는 징



을, 종승이는 팽과리를, 다숨이는 장구꼴, 그리고 명식이는 북을 택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설피지만 신명나게 때로는 자신에게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를 흥내냅니다.

### 3. 유의 사항

- ◎ 우리악기 연주하기과정은 악기를 직접 연주해봄으로써 우리악기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활동들로 구성하고 있다.
- ◎ 농악이나 사물놀이, 관현악편성, 삼현육각 등의 합주를 해보고 어떠한 소리들이 어떻게 모여 소리가 잘 어울리는지를 체험한다.

## 4. 참고

### □ 장단에 대하여

우리음악에서 장단은 가락과 함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음악을 제대로 느끼려면 무엇보다도 장단을 잘 알아야 한다. 장단을 알고 들으면 낯선 곡과도 곧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다. 장단이란 일정한 빠르기를 가진 리듬형으로 장구나 북으로 친다. 장단은 크게 민속악장단과 정악장단으로 나눈다. 정악장단은 곡에 따라 기본 장단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꾸밈없이 일정하게 친다. 이에 비해 민속악장단은 음악의 분위기와 연주자의 분위기에 따라 기본장단을 갖가지로 변화시켜 치기 때문에 한층 흥겹다. 반주를 할 때는 가락이 약해지는 부분과 한 음을 길게 끌어주는 부분이나 끝부분에서는 오히려 잔가락을 넣어 다양함을 더해주고 가락을 한창 이어갈 때에는 반대로 반주가락을 덜어주는 것이 국악 반주의 미이다.

### □ 장구와 북의 생김새와 소리내기

우리가 잘 아는 장구와 북은 독립된 악기로 연주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반주악기로 사용된다. 서양악기의 반주악기인 피아노가 일정한 음높이를 가지고 있어 악기나 음성을 피아노에 맞추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구와 북은 주어진 박자와 장단만을 치기 때문에 연주자의 능력에 맞도록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

#### ◎장구

장구는 가운데가 가늘어서 ‘세요고’ 또는 ‘요고’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구라고만 부른다. 한자로는 장고(杖鼓)라고 쓰지만 우리 말로는 장고라고 하지 않고 장구로 굳어져 있으며 그렇게 부르기로

통일되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신라시대 범종에 새겨진 그림 등을 보면 장구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장구의 통은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통의 왼편을 북편, 오른편을 채편이라고 한다. 북편은 가죽이 두터워 무거운 저음을 내고 채편은 가죽이 얇아 맑고 화려한 음을 낸다. 장구의 양편을 엮어매는 줄에는 조이개가 붙어 있어서 줄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음빛깔과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채편은 대나무로 만든 장구채로 치는데 음악에 따라 한 가운데인 북편을 치기도 하고 가장자리인 변죽을 치기도 한다. 실내악 편성의 합주나 독주, 독창의 반주에서는 변죽을 치고 야외음악이나 음량이 큰 대편성 관현합주에서는 북편을 친다.

북편은 보통 왼손으로 북편을 치지만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를 할 때는 궁글채를 사용한다. 그러나 풍물놀이나 사물놀이에서의 풍물장구는 가락을 치는 독립된 악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주악기라고 할 수는 없다.

장구기법의 기본은 구음으로 말하면 땡(땡), 덕, 쿵, 더러러이다. 땡은 북편과 채편을 함께 치는 합장단이다. 덕은 채로 채편을 치는 주법을 말한다. 더러러는 채의 끝으로 채를 굴려서 치는 주법이다.

#### ◎ 북

북에는 관소리 반주에 쓰이는 소리북과 풍물놀이나 사물놀이에 쓰이는 풍물놀이북 두가지가 있다. 풍물놀이북은 풍물장구와 마찬가지로 가락을 치는 독립적인 악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주용 북이라 하면 소리북을 가리킨다. 소리북을 칠 때에는 오른손에 북채를 쥐고 장단에 따라 오른쪽 가죽이나 북통의 윗부분을 치고 왼손으로는 엄지손가락을 북통 위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왼쪽가죽을 친다. 소리북은 대취타를 할 때도 사용된다.

#### □ 팽과리와 징의 생김새 및 소리내기

#### ◎ 팽과리

타악기 중에서 가장 소리가 요란하고 기법이 다양한 악기가 팽과리

이다. 그 때문에 팽과리를 치는 상쇠는 풍물놀이나 사물놀이 또는 굿판 등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 장단과 가락이 바뀌는 것이다. 역할에 따라 팽과리는 암팽과리와 숫팽과리가 있다. 보통 상쇠는 땡땡하며 높은 음이 나며 소리가 차진 숫팽과리를 치고 부쇠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암팽과리를 친다. 팽과리를 칠 때에는 약 한뼘 정도 길이의 대나무 뿌리 한쪽 끝에 단단한 나무를 동그랗게 깎아 끼워 만든 채를 사용한다. 이 채를 오른손에 쥐고 팽과리의 바깥부분을 친다. 왼손은 엄지손가락으로 팽과리를 받쳐들고 나머지 네손가락을 팽과리의 안쪽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장단에 따라 소리를 조절한다.

## ◎ 징

팽과리, 북과 함께 징도 원래는 군중에서 쓰이는 악기였다. 옛날에는 대금, 금징, 금, 고취징 등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징이라는 이름만 사용한다. 징은 대취타나 풍물놀이, 사물놀이, 불교음악이나 무속 등에 두루 쓰인다. 사물놀이에서 팽과리가 잔가락을 쳐준다면 징은 각 장단의 첫박을 쳐 확실한 박을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물놀이에서 징은 흔히 바람에 비유되기도 한다. 가만히 치면 부드러운 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힘있게 치면 크고 웅장한 소리가 장단에 힘을 더해주는 징소리가 바람만큼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렇게나 그 때 그 때 치기만 하면 될 듯 싶기도 하고 누구나 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징을 제대로 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각 장단의 분위기와 특성에 맞게 잘 조절해 치지 않으면 소리가 깨어지거나 산만해져 전체적인 가락의 맛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징은 모든 타악기의 소리를 감쌀 뿐만 아니라 단락을 지워주고 부드럽게 융화시켜 주기도 한다. 따라서 징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징을 치는 사람은 가락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 □ 사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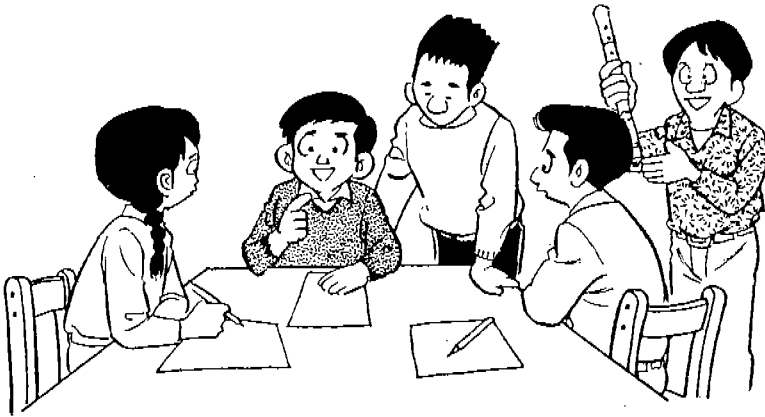
사물놀이란 고도로 무대화된 타악기의 연주형태로 사물(四物), 즉 팽과리, 북, 장구, 징의 네가지의 악기를 사용하여 풍물굿의 가락을

음악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사물놀이’라는 말은 1978년에 생긴 전통타악 연주단체인 ‘김덕수패 사물놀이’에서 자신들 스스로 붙인 단체의 이름이었다. 결국, 사물놀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풍물을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시킨 현대적인 악기 연주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물놀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 풍물굿                | 사물놀이                 |
|------|--------------------|----------------------|
| 연주장소 |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서       | 좁은 공간이나 무대에서         |
| 연주시간 | 시간제한이 없다.          | 한 작품당 10~15분 정도이다.   |
| 연주인원 | 많을수록 좋다.           | 보통 4~6명 정도로 한다.      |
| 연주목적 | 놀이를 지향한다.          | 짧은시간에 고도의<br>기량을 보인다 |
| 가락특징 | 같은 가락의<br>되풀이가 많다  | 대표적인 가락을 이어서 만든다     |
| 관객반응 | 판에 끼어들기가 쉽다.       | 공연에 끼어들기가 어렵다.       |
| 진풀이  | 판에 따라<br>즉흥성을 살린다. | 틀이 공연전에 짜여져 있다.      |



# 우리악기 새로 슅�찰기



번뜩이는 영감으로  
모의국악기 연주경연대회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  
창작국악곡의 세계로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우리악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국악창작의 움직임을 이해하며 우리악기를 보다 창조적으로 응용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국악기로 주어지는 상황을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 모의 국악기연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연주한다. | 새롭게 작곡되고 있는 창작기악곡을 선정하여 그 느낌을 표현한다. |

#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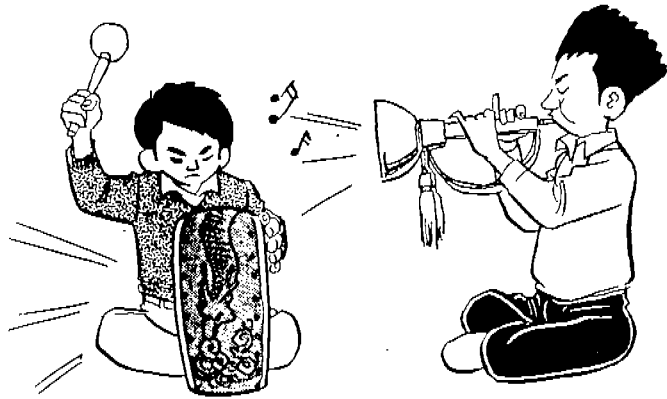
## 활 동 1 번뜩이는 영감으로

### 활동내용

- ▷ 배경음악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한다.
- ▷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악기를 선정한다.
- ▷ 악기로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 ▷ 악기와 그 이미지의 연관성과 즉흥적인 표현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강의 ☐ 구안법 ☒ 워크샷



## 악통이의 도움활동

칠흙같은 어둠입니다. 이제 막 하늘이 열리고 해가 솟습니다. 악통이는 그 이미지를 마음 속으로 그립니다. 그러다가 한 구석에 놓인 북채를 잡습니다. ‘동동동동……’ 맑은 편에 있는 병석이는 태평소를 봅니다. 북과 태평소의 어울림에 그것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닌 이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돌립니다. 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벅찬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병석이의 태평소 소리는 갑자기 나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가 여운을 남기고 사라져갈 때 다른 배경이 제시됩니다. 조명이 서서히 켜지면서 푸른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무대 뒤에 빛으로 투영되어 누군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겨울입니다. 저는 대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신디사이저의 소리와 구슬프게 들리는 구음이 귓가를 맴돕니다.

## 활동 2 모의국악기 연주경연대회

### 활동내용

- ▷ 모둠별로 나누어 어떤 종류의 곡을 선정할 것인지를 정한다.
- ▷ 주위에서 우리의 소리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모의악기를 선정하거나 만든다.

- ▷ 대회에 알맞는 의상을 준비하고, 모듬별로 연습을 한다.
- ▷ 경연대회를 하고, 우수한 모듬이 축하공연을 연다.

#### 활동방법

✓ 워크샷 ✓ 토론 \_\_\_\_\_ 게시 및 전시 \_\_\_\_\_ 역할연기



#### 악통이의 도움활동

악통이는 ‘대금’연주를 듣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대금산조가 흐르는 자연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산 속에서 대금의 가락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악통이 모듬은 대금을 상상하며 ‘정선아리랑’을 선택한 후, 악기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 논의합니다. 늘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다숨이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입술을 떨어 다같이 ‘정선아리랑’을 합주하자고 제안합니다. 너무 혼한 방법이라고 종승이가 반대하였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다숨이의 생각과 같이 입과 손가락으로 대금소리를 내어 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소 평범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악통이네 모듬은 상의를 모두 하얀 옷으로 통일합니다. 몇 번의 연습 후,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구성지게 ‘정선아리랑’을 연주합니다.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우식이네 모듬이 모두 피리를 가지고 나와 어렵다는 ‘수심가’를 멋드러지게 연주해서 결국은 우승을 합니다.

### 활동 3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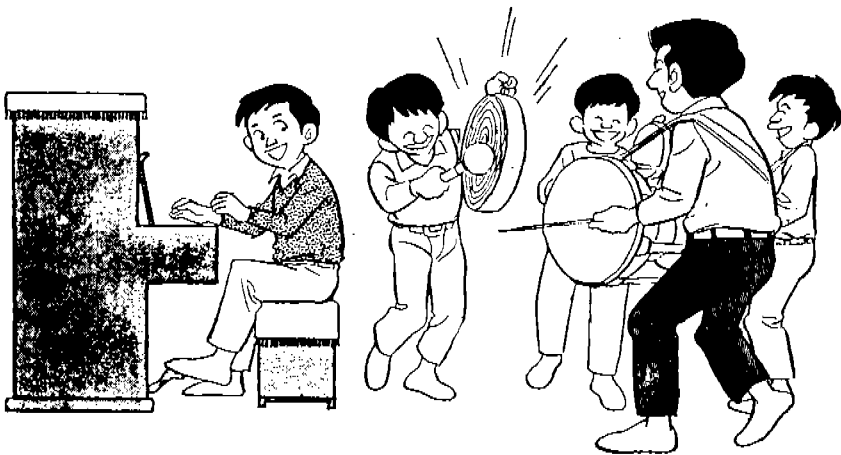
- ▷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모은다.
- ▷ 악기를 모두 연주를 하고 음색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 지운다.
- ▷ 모아진 악기끼리 적당한 곡을 선정하여 연주하고 발표한다.
- ▷ 가장 훌륭하게 연주한 모둠에게 상을 준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악통이의 도움활동

학교수업이 끝나면 일주일에 두 번 악통이가 가는 곳이 피아노 학원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왔는데 학교공부를 핑계삼아 연습하는 데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하니 이제는 피아노 소리가 지겨워집니다.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않았는데... 신명나는 사물놀이처럼 그렇게 즐거워서 피아노를 칠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피아노와 사물을 함께? 피아노 교습에 식상한 저에게 신선한 발상입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저는 피아노에 앉았고 그 옆에는 사물놀이패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사물의 리듬에 맞추어 음을 조금씩 잡아갑니다. 즉흥성이 우리음악의 생명이라던가요, 이렇게 저렇



게 변주를 해봅니다. 제즈피아노를 익히는 것은 평소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피아노에 숙달한 내게는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우리 모듬은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전무용을 배웠다는 수지의 살풀이와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인 경화가 함께 하는 환상적인 공연이 남학생들의 표를 다 뺏어갔거든요. 게다가 악통이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인줄 알았더니 사물놀이와 재즈의 만남은 이제 실험이라기 보다는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 활동 4 창작국악곡의 세계로

### 활동내용

- ▷ 현재 국악 창작의 흐름에 대해 각자 조사를 해보고 자신이 느낀 점을 발표한다.
- ▷ 창작국악곡을 선정하여 듣는다.
- ▷ 전통적인 국악곡과 비교할 때 창작국악곡은 어떠한 느낌을 주는 지를 생각한다.
- ▷ 창작국악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워크샷   ☐ 구안법   ☐ 역할연기

### 악통이의 도움활동

요즘에는 국악실내악단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슬기둥’이라고 하는 한 국악실내악단의 공연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실내악이라는 장르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관객과 연주자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음악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죠. 아주 재미있는 곡들이 많았습니다. 더러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익숙치 않은 곡들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이런 공연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실내악단이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국악의 해라서 그런지 이곳 저곳에서 공연도 많고 우리음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통이는 사라져가는 이땅의 소리를 위해서 우리곡을 새롭게 창작하는 국악 작곡가들에 관심이 있고 그분들이 멋있게 보입니다. 어느 작곡가의 인상적인 곡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피천득의 ‘꿈’이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그날 서점에서 그 시를 찾아 해매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숲새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 흰돛단 작은 배 접어서 띄고 당사줄 닻줄을 풀잎에 매고 노래를 부르며 기다렸노라/버들잎 늘어진 푸른 강위에 붙어온 봄바람 땀을 스칠 때 젊은 꿈 봄 나무에 잠들여 놓고 피리를 불며 기다렸노라.’ 이 구절을 본 순간 우리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넘쳐 흐릅니다.

### 3. 유의사항

- ◎ 우리악기 새모습찾기 과정은 우리악기를 응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들은 자발적으로 창작국악의 새로운

시도를 알고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악기소리의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 즉흥연주를 해보고,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함께 연주를 해보며 창작기악곡을 들어보고, 국악실내악단을 만들어보는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시도되는 국악을 접해보는 한편, 우리악기가 현대음악에 어떻게 수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4. 참 고

### □ 창작 기악곡

창작 기악곡의 분야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는 국악인들이 많이 있다. 박범훈, 김희조, 이상규, 황의중, 전인평, 백대웅, 이성천, 이혜식 등이 있고, 연주가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병기, 김영동, 정대석, 김영재 등이 있다. 이들의 최근 창작곡 가운데 흔히 연주되는 곡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 박범훈 : 사물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합주곡 ‘신모듬’, 관현악곡 ‘신내림’.
- 황병기 :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비단길’ 등.
- 김희조 : 가야금 협주곡 창과 관현악 ‘성주풀이’, ‘홍타령’, ‘개고개타령’, 창과 관현악 ‘황성가는 대목’ 등.
- 김영재 : 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해금협주곡’, 해금독주곡 ‘비(非)적념’.
- 이상규 : 피리협주곡 ‘자진한잎’,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해금협주곡 ‘수나뉘’.
- 이성천 :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 ‘바다’.

- 황의중 : 관현악곡 ‘단선’, 가야금 독주곡 ‘청산’.
- 김영동 : 관현악곡 ‘때곳’, ‘신수제천’.
- 이강덕 : 메나리 주체에 의한 피리협주곡
- 백대웅 : 가야금 중주곡 ‘세 대의 가야금을 위한 상주 모심기 노래’, 실내악곡 ‘회혼례를 위한 시나위’.
- 김기수 : 관현악곡 ‘송광복’.
- 정대석 : 거문고 독주곡 ‘수리재’, ‘일출’.
- 김상철 : 가야금 병창곡 ‘어디에 선돌 어떠랴’.
- 김정길 : 실내악곡 ‘8주자를 위한 추초문’.
- 이해식 : 관현악곡 ‘해동신곡’.

악기별로 보면 창작기악곡 중에서는 가야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가야금 독주곡으로 김영동의 ‘무제’, 김영재의 ‘춘접무곡’, 이상규의 ‘설무’, 황병기의 ‘남도환상곡’ 등이 있다. 기악독주곡으로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등의 전통악기 이외에 15현가야금, 21현금, 18현금 등의 연주가 시도되기도 한다. 독주곡과 관현악이 합주하는 서양음악의 협주곡 형식도 국악의 여러악기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곽 준(1993), 판소리와 장단, 아트 스페이스.
- 김영혜(1994), 중등학교 일반음악 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음악 교재개발을 위한 소고 - 감상교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진(1993), 국악기해설, 삼호출판사.
- 김정수, 고춘선, 허화병(1993), 초·중·고 교사를 위한 전통음악 학습지도법, 세광출판사.
- 김재호(1991), 음악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적 요소 및 지도실태 분석을 통한 국악지도 체계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부(1992), 한국의 민속예술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 박창옥(1992), 국악기초이론, 삼호출판사.
- 봉천놀이마당 엮음(1994), 민속교육자료집, 우리교육.
- 성경린(1994), 국악감상, 삼호출판사.
- 송석원(1991),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 국악부분 분석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토미(1991), 사물악기지도 활성화를 통한 국악적 표현능력신장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숙(1989), 국민학교 국악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의 길라잡이, 서울미디어.
- 이성천(1991),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풍남.
- 이정희(1990), 초·중·고등학교의 국악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 - 장고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임수철(1994), OK 국악 - 민속악편, 정악편, 작은우리.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 장사훈, 국악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 정병호(1990), 농악, 열화당.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4), 문화예술 1월호~11월호.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편(1992), 사물놀이 1, 2, 삼호출판사.

한명희(1994), 우리가락 우리문화, 조선일보사.

홍혜련(1991), 국악창작곡의 분석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시청각 자료

- 「가야금」 (KBS/한국의 소리/46분)
- 「가야금」 (경남 교육연구원/1990년 제작/30분/가야금의 내력, 구조, 종류, 줄고르기, 연주자세, 악곡연주, 각 장단별 연주방법)
- 「가야금 유래와 산조」 (문화재관리국/1993제작/30분)
- 「거문고」 (KBS/한국의 미/37분/거문고의 역사성과 거문고 제작, 고금, 연주, 강습, 창작곡 등)
- 「단소」 (경남 교육연구원/1989제작 /60분/기초 연주방법, 민요곡 학습)
- 「대금」 (KBS/한국의 미/38분/대금의 역사와 특성, 제작과정)
- 「바람의 소리 -징」 (KBS/1992/징 만드는 과정에 대한 소개)
- 「북소리」 (KBS/한국의 미/1990년 제작/38분)
- 「북쟁이 - 윤덕진」 (MBC/50년 이상 전통북 만들기의 길을 걸어온 윤덕진의 삶)
- 「시나위 1, 2」 (KBS/토요일 우리국악/각 60분)
- 「심금의 예인 - 원광호」 (MBC/거문고의 명인 원광호의 거문고 세계)
- 「어느 상쇠이야기」 (KBS/한국탐구/40분/마지막 남사당패 쇠잡이 김용배의 삶)
- 「우리의 소리- 국악기」 (MBC/대금, 거문고/가야금을 통한 국악기의 유래와 철학적, 소리의 맛, 전통 국악기의 소개와 발전방향, 중국과 일본의 소리와 우리소리의 다른점)
- 「장구」 (KBS/한국의 미/38분/장구의 역사와 유래, 제작과정, 특성, 주법 등)
- 「장구」 (경남 교육연구원/1989제작 /20분/쾌지나 칭칭나네(굿거리), 천안삼거리(굿거리), 뭉금포 타령(중모리), 고사리 뿔자(자진모리), 밀양아리랑(세마치), 웅혜야(단모리) 등)
- 「징」 (KBS/한국의 이미지/60분, 88. 9. 15./음악과 축제의 기본악기라 할

수 있는 징과 팽과리 소개)

- 「타악기 연주가 - 박동옥」 (MBC/소리를 찾아 전국을 찾아다니는 타악기 연주가)
- 「풍류인생 - 김무규」 (MBC/단소풍류의 전수자 김무규의 인생)
- 「한국악기」 (문화재 관리국/1993제작/18분)
- 「한국의 춤과 소리」 (KBS/90분/88. 6. 4./수제천, 가야금산조, 시나위 등 공연)
- 「황병기의 가야금」 (KBS/한국의 미/1990년 제작/38분)
- 「홍겨운 리듬의 창조 - 북과 장구」 (KBS문화강좌/90분/이승렬, 김득수)
- 「KBS국악 5편」 (KBS 특별제작 기획상품/각 90분/가야금, 거문고, 대금, 장고, 북, 징)

